Entertainment p/20



'응급남녀' 인기몰이 진행중

metro®
메트로 2014년 3월 7일 금요일 제2929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사랑에 빠진 김연아-김원중

<유전자재조합 식품>

GMO원료 식품 표시 의무화 촉구

잠재적 위해성 들어 소비자원 강력 요청

시민단체로부터 꾸준하게 유전자재조합 식품(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표시 제도와 문제점 등에 대해 무시하는 정책을 펼쳐왔던 정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정면으로 해당 제도 개선을 요청해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일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대두유 12개·카놀라유 14개 등 식용유류 26개 제품의 지방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수입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에서 일반 품종에서 나타날 수 없는 지방산 조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제품의 지방산은 올레산 73.2%, 리놀레산 15.2%, 리놀렌산 2.6%였다. 일반 품종의 지방산은 올레산 51~70%, 리놀레산 15~30%, 리놀렌산 5~14% 수준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유전자 변형된 올레산 강화 카놀라를 원료로 사용했거나 올레산 강화 GMO 콩으로 만든 제품을 카놀라유로 속여 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조국의 간성…신임 소위 선서 6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2014년 장교합동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번 임관식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학군 후보생 등 5860여 명이 소위로 임관했다. /뉴시스

이 과정에서 소비자원은 국내의 GMO 표시 제도는 유럽·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표시를 면제하는 예외 규정이 많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GMO는 생물체의 유전자 중 필요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결합해 개발자가 목적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 등을 통칭한다. 제초제에 대한 저항성 강화 등을 비롯해 병·해충 저항성, 저장성 향상, 고영양분 성분 함유 등의 장점을 가져 농산물을 재배토록 해 수량 증대, 품질 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아직도 GMO의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인체 실험 데이터는 세계적으로 찬반 어느 쪽에서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포유류에 대한 실험 결과가 프랑스·러시아·독일·중국·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보고서로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와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이나 중국 등은 최종 제품에 외래 DNA나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GMO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해당 표시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미국도 일반 품종과 비교해 영양 성분이 차이가 나는 GMO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은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상업화된 18개 GMO 작물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만 7개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품에 많이 사용한 원재료 5위 안에 GMO가 포함되지 않거나 함량이 3% 이하면 표시를 면제하고 있어 GMO 제품 여부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 세계에 상품화된 GMO는 옥수수·면화·감자·카놀라·대두·사탕무·알팔파·쌀·치커리·파파야·가지·아마·토마토·밀·멜론·자두·호박·파프리카 등 18개 작물이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표시 대상인 GMO는 옥수수·면화·감자·카놀라·대두·사탕무·알팔파 등 7개 작물에 불과하다.

소비자원은 식약처에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의 표시 의무화 ▲원재료 전 성분을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 ▲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GMO에 대해 표시 대상 확대 ▲GMO 함량 허용치 1% 수준으로 하향 조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는 이번에 소비자원과 같은 내용에 대해 주장을 벌여온 소비자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을 여러 차례 무시해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날 즉각 논평을 통해 소비자원이 식약처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의무화하는 'GMO 표시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무 부처인 식약처와 국회가 소비자원의 경고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현행 GMO 표시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GMO 표시 제도 개선은 지난 10년간 수많은 토론과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제는 결단하고 바꾸는 일만 남아있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측은 "우리나라는 세계 제2의 GMO 수입국이며, GMO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중에 이를 표시한 제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현행 GMO 표시 제도를 규정한 식약처 고시가 너무 넓은 예외 조항을 둬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고 성토했다.

<2면에 계속>

줄기세포 이용 무릎연골 재생 보라매병원 교수팀 연구 발표

줄기세포를 이용해 무릎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발표됐다.

서울시 보라매병원 조현철·윤강섭 정형외과 교수팀은 퇴행성관절염을 앓는 환자의 복부 지방에서 분리·배양한 줄기세포 1억 개를 무릎관절에 주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무릎 위, 아래 연골의 부피가 각각 14%, 22% 재생·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줄기세포 주사 이후 무릎의 안쪽 위, 아래쪽 관절 면에서의 뼈 노출 정도도 각각 32%, 64% 감소했으며 무릎 기능 평가 결과에서도 치료 이전에 비해 환자들의 무릎 기능이 39% 호전됐다.

이와 함께 총 18명의 환자를 3개 집단으로 나눠 저용량(1000만 개), 중용량(5000만 개), 대용량(1억 개)의 줄기세포 주사를 투여한 결과 대용량군에서 가장 크게 연골이 재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사 후 12개월 동안 특별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를 주도한 윤강섭 교수는 "이번 연구는 줄기세포 주사를 이용한 관절염 치료법 개발에 관한 세계 최초의 상업 임상시험이라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대규모 임상연구를 통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줄기세포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국제 학술지인 스템 셀즈(임팩트 팩터 7.701) 온라인판 1월호에 게재됐다. /황재용기자 hsoul38@



신임 해수부 장관 천안함 묘역 참배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6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내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까지 육군 11만명 감축

1·3군 통합 지상군사령부 창설

국방부가 2022년까지 우리 군의 상비 병력을 52만여 명 수준으로 줄이고 이 중 40% 이상을 간부로 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1·3군 사령부를 통합해 지상군작전사령부(지작사)를 창설, 전방 군단을 직접 지휘하며 지상 작전을 책임지게 했다.

6일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르면 1·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작사를 창설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는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 전방 군단을 통솔하면서 우리 군의 지상 작전을 맡게 된다.

군의 작전 체계가 합참의장→지작사령관→전방 군단장으로 단순 일원화해 군의 작전 수행 체계를 야전 군사령부에서 전방 군단 중심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다. 2026년까지 8개에서 6개로 감축되는 군단에는 공군 요원들로 구성된 항공지원작전본부(ASOC)가 편성된다.

북한의 240㎜ 방사포와 170㎜ 자주포 등 장사정포의 공격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전방 군단장이 직접 ASOC에 지시해 지대공미사일과 유도폭탄 등을 장착한 공군 전투기의 출격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작사가 창설되면 4성 장군(대장)은 현재 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합참의장을 보좌하는 합참차장(중장)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1차장은 군사력 건설 분야를, 2차장은 작전지휘 분야를 각각 보좌하게 된다.

상비 병력은 현재 63만3000명에서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11만1000명이 줄어든다. 육군만 49만8000명에서 38만7000명으로 감축되고 해군(4만1000명)과 공군(6만5000명), 해병대(2만9000명)는 병력 규모에 변화가 없다.

육·해·공군 병력 중 간부 비율은 현재 29.5%에서 42.5%로 향상 조정된다. 병사는 44만6000명에서 30만 명으로, 장교는 7만1000명에서 7만 명으로 줄이는 대신 부사관을 11만6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늘린다.

지작사 창설 시기는 2012년 국방개혁안 발표 때만 해도 2015년 말로 예정돼 있었지만 전작권 전환 재연기 등을 이유로 5년가량 미뤄졌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선거종합상황실 설치 지방선거 90일을 앞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주·야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스모그와의 전쟁 선포한 중국

기자 수첩



조선미 <글로벌부 기자>

3년 전 중국 네이멍구 쿠부치 사막에 다녀왔다. 식목 행사 취재를 위해서다. 쿠부치 사막은 동북아시아의 황사 발원지다. 매년 전 세계 시민단체와 기업은 중국 정부와 친환경 프로젝트를 진행, 이곳에 나무를 심는다.

당시 사막 한복판에 심어진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보고 입이 쩍 벌어졌던 기억이 난다. '누런 폭풍' 속에 세워진 '초록빛 장벽'이 믿기지 않아서다. 그러나 모래 언덕 위에 올라가 내려다본 풍경에 다시 한 번 놀랐다. 멀리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황사를 막겠다며 나무를 심고, 다른 한쪽에서는 석탄을 태워 발전소를 운영하는 중국. 고속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대륙의 '두 얼굴'이다.

5일 개막한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 총리는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처럼 스모그에 대해서도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소형 석탄 보일러를 퇴출하고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차량 600만 대를 폐차시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았다.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의 공습을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스모그와의 전쟁' 선포가 반갑기 그지없다. 다만 이번 전쟁 선포가 보여주기식의 쇼에서 그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환경문제의 최대 희생자는 결국 중국 자신이 아닌가.

전세계 상업화 18개중 7개만 표시

<1면에서 계속>

또 "정부 조사 결과 매년 약 80%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있고, GMO의 인체 위해성 문제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먹는 음식에 GMO가 포함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표시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어떤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식품업계는 GMO 완전표시제의 도입은 도리어 소비자에게 가격 상승 등의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고 식품 산업 전반에 비용 증가로 업계 혼란을 야기한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게다가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이런 식품업계 입장만을 중시한 채, 수입 현황 등의 정보를 비공개하고 GMO 표시 제도 개선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최근 검토보고서를 통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경실련을 끝으로 "정부와 국회는 식품업체와 다국적 기업의 눈치만 보며 GMO 개발과 수입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번 한국소비자원의 요구를 경청해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알 권리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소비자 행복을 위해 GMO 표시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식품 근절 등 안전한 먹거리 정책에 생색만 내지 말고 정당한 시민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우선"

박 대통령 조찬기도회 참석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뢰와 평화의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6일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 "그동안 한국 교회는 어두운 곳에 희망을 주고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갈림길에 서있다"며 "우리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혁신해서 다시 한 번 대도약하는 토대를 만들고, 한민족 모두가 행복한 평화통일 시대의 문을 열어가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우리 사회 구석구석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부정과 부패, 도덕성의 추락 또한 너무 오래 방치해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도 우리 경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김민준기자

북한 적십자실무접촉 제의 거부

북한이 우리 정부의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제의를 거부했다.

북한은 6일 오전 조선적십자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지금은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질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못하다"고 통보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북한은 "현 남북 관계로 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같은 중대한 인도적 문제들은 남북 적십자 간 협의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는 향후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적십자 실무접촉이 아닌 고위급 접촉을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 키 리졸브 연습은 끝났지만 독수리 연습은 내달 18일까지 계속될 예정으로, 북한의 대화 제의 불응은 내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민준기자

새천년대교 뇌물비리 구속

시공-하도급-납품사 수십억 상납 적발
수입차 선물 받고 유흥비만 5억원 탕진

전남 신안군 압해읍과 암태도를 잇는 새천년대교 공사 과정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시공사와 하도급 회사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시공사와 하도급 회사, 납품업체 간의 '갑을 관계'가 상납 고리로 이어진 사건이어서 주목된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배임수재와 뇌물공여 혐의로 대우건설 현장소장 박모(57)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하도급사인 도양기업의 현장소장 김모(46)씨를 배임증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감리업체와 다른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도양기업의 공사비를 증액해 주고 차액 3억원을 매달 1000만원씩 나눠 받기로 하고 지금까지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김씨에게서 하도급 선정과 공사 편의 제공 대가로 1억2000만원짜리 아우디 승용차를 받기도 했다.

◆갑을 관계 뒷돈거래 고질적 비리

김씨는 납품업자들에게 자재를 사들이면서 부풀린 대금 차액 12억원을 돌려받아 일부는 박씨에게 상납하고 나머지는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년7개월 동안 룸살롱에서만 5억원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갑을 관계의 업체들끼리 뒷돈 거래, 공사비 착복을 하고 이 돈은 유흥업소에 퍼붓는 고질적인 비리"라며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발주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총체적인 감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새천년대교는 5500억원이 투입돼 오는 2018년 8월 완공될 예정이다.

/안용기기자 kahn@metroseoul.co.kr



여성 노동 독립을 위해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여성노동정치행동 등의 주최로 열린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노동독립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여성노동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KT 홈페이지 해킹…1200만명 유출

KT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가입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T 홈페이지를 해킹,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문해커 김모(29)씨와 정모(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과 공모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3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하루 20만~30만건씩 최근 1년간 1200만명의 고객정보를 털었다. 이들이 확보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이다.

이들은 이렇게 빼낸 고객정보를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 1년간 약 1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이들이 판매한 정확한 휴대전화 규모를 파악하진 못했지만 휴대전화 1대당 20만~4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KT 관계자는 "고객정보 유출경위에 대해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며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금천, 청소직 준공무직으로

서울시 금천구는 민간위탁 형태로 종합청사 청소업무를 수행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13명을 지난 1일부터 준공무직 '위생원'으로 전환, 구에서 직접 고용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청소분야 민간 통상정년인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사 모집

서울시 도봉구는 3월 한 달간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업체 모집에 나선다. 이번 모집은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 및 사업추진 장소 확보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 조성

서울시 영등포구가 지역 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센터는 이달 중으로 설계에 들어가 6월부터 공사에 착수,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공구상 제품이 군함에 사용돼

방산부품 제조업자 구속

원전에 이어 군함에도 짝퉁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부품은 일반 공구상사에서 생산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해군의 차기 호위함 부품을 공구상사에서 주문 생산해 납품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방산부품 제조업자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방산업체 이사 B(48)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1월 해군 차기 호위함의 핵심 장치인 함안정 조타기 주요 부품을 독일산 순정품이 아닌 국산 비규격품을 납품하고 7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부품을 부산의 한 공구상사에서 주문 생산해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용기기자

여성 대체인력지원센터 설치

출산과 육아를 앞둔 여성이 마음 편히 휴직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체인력을 공급해주는 서울시 여성 대체인력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세계 여성의 날을 이틀 앞둔 6일 '여성일자리 종합계획'을 6일 발표했다.

대체인력지원센터는 모두 6곳으로 광진구 여성능력개발원에 총괄센터를 두고 권역별로 마포·광진·양천·금천·노원구에 1곳씩 운영된다. 센터는 대체 인력이 필요한 기업의 예약을 받았다가, 대체 인력 근무를 희망하는 여성에게 직무 교육을 해 적시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20대 여성을 위해 2~3곳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적성을 찾도록 돕는 '여성 잡 투턴십도 운영한다. /김민준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영화감독 큐브릭 사망
영화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영상을 만들어낸 거장 중 한 명인 미국의 영화감독 스탠리 큐브릭이 1999년 3월 7일 71세의 나이로, 런던의 자택에서 죽었다. 큐브릭의 영화 세계는 매우 극단적이고 난해하며 기술적 완벽성을 추구했는데 철학적 성찰이 담긴 SF 영화로 차세대 영화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 작품은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시계태엽 오렌지' '샤이닝' '아이즈 와이드 샷' 등이 있다.

대학생 홍보 '해피메신저' 모집

서울메트로, 21일까지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오는 21일까지 대학생 홍보단 '해피메신저'를 모집한다.

해피메신저는 수도권 2~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울메트로는 취재기자 8명과 영상기자 4명 등 총 12명을 선발한다.

서울메트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선발되며 지원자의 활동 경력, 홍보 아이디어 등을 평가한다.

최종 선발된 해피메신저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팀별·개인별 지하철 홍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직접 기획 취재와 영상 촬영을 통해 지하철을 알린다.

해피메신저는 소정의 월별 활동비와 아이디카드, 명함 등을 지급받고 서울메트로에서 주최하는 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자살 20년새 3배…경제문제가 으뜸

한국의 자살 사망률이 20년 새 3배 늘어난 가운데 자살 원인의 5건 중 1건은 '경제생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2012년 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자해 사망자(자살)는 28.1명이었다. 20년 전인 1992년 8.3명의 3배가 넘는다.

자살 사망률은 1992년 8.3명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 18.4명으로 늘었다. ▲2002년 17.9명 ▲2007년 24.8명에 이어 ▲2011년 31.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에는 28.1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경찰청이 2012년 자살 사망자의 유서와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5건 중 1건에 이르렀다.

2012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자살 1만3940건 중 2618건(18.8%)이 경제생활 문제로 가장 많았다. /윤다혜기자 ydh@

인재양성사업 협력대학에 선정

동덕여자대학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14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조적 역량 인재양성사업' 협력대학에 선정됐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문화·예술 전공 및 인문계열 학생들의 창의적인 '창직 아이디어'를 이용해 창업 및 직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정사진 찍어드리는 착한 公僕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⑧ 서울 동작구청 김충범 팀장



형편 어려운 어르신 200여명 사재 털어 액자에 넣어 선물

지역의 각종 행사 때마다 사진 담당이 아닌데도 사진기를 들고 나타나 바쁘게 셔터를 누르는 '괴짜' 공무원이 있다. 서울 동작구청 건축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충범(53·사진) 건축관리팀장이다. 그는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영정사진을 무료로 찍어준다.

◆사진작가협회 회원…입상 경력

1989년에 서울시 공무원으로 입사한 김 팀장은 대한민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이라는 이색 경력을 갖고 있다. 1993년도에는 제12회 대한민국사진전람회에서 '순간 포착'이라는 작품으로 입선하기도 했다. 3년 전부터는 어르신들의 영정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족 사진을 잘 찍어주고 싶어서 취미로 시작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진도 많이 찍었죠. 그러다 우연히 어르신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세월의 흔적을 담고 싶었는데 한 어르신이 자신의 영정사진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하셨어요.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이후로 양로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구 노인복지과를 통해 지역 내 양로원을 찾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요청하면 집까지 찾아가는 출장 봉사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직접 찍은 사진을 인화해 사비를 들여 액자에 넣어 선물한다. 그동안 영정사진을 찍어 드린 어르신들이 200여 명에 달한다.

"평소에 봉사를 많이 하고 싶었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돕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로 방법을 찾았던 것이 사진이에요."

◆"봉사, 앞으로 계속할 것"

누구에게나 사진을 찍어드리지는 않는다. 이런 그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여러 곳에서 사진을 찍어달라며 부탁이 왔지만 '무료 영정사진'을 찍는 그만의 단호한 철칙이 있다. '돈이 많은 어르신이 아닌 정말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만 찍어드리는 것'이다.

그는 "공무원들이 봉사에 인색하다는 편견이 있는데 내가 나서서 남들을 먼저 돕고, 동료들에게는 동기부여를 주고 싶다"며 "앞으로도 영정사진 찍어드리는 일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청도 '금복숭아 꽃' 활짝 6일 경북 청도군 이서면 신촌리 박준규(42)씨의 시설하우스 내 금복숭아인 용궁백도의 꽃이 만개했다. /청도군 제공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global

metro Brazil

metro Russia

metro Nicaragua

metro Colombia




и перестали
› друг друга

지하철 탑승 매너 설문조사

최근 메트로 모스크바는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매너 없는 행위로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승객 콘스탄틴 로슈크는 "승객들이 내리기도 전에 지하철에 타려는 사람들 때문에 서로 밀게 된다"며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 전쟁이 따로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여성들이 자리 양보를 기피한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만하다. 한 여성은 "승객들의 나이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했다.


eción y privacid
as a vacacionar e

유명배우 찾아 휴양지 각광

중남미의 소국 니카라과. 최근 미국 영화배우 마이클 더글러스, 모건 프리먼 등 유명 배우들이 니카라과의 휴양지를 찾으면서 이곳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천혜의 화산 지형을 자랑하는 니카라과는 아름다운 풍경과 이국적인 정취가 매력적이다. 니카라과를 찾은 스타들은 자국으로 돌아간 뒤 '니카라과 홍보대사'를 자청한다. 특히 더글러스와 프리먼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덕분에 니카라과의 인기가 높아졌다.

상파울루 카니발에 호나우두 등장

브라질 축구 영웅 동참에 시민들 '환호'



브라질 카니발에 전설적인 축구선수 호나우두가 동참해 화제다.

호나우두는 최근 수많은 기자와 사진사를 몰고 상파울루 카니발에 참가했으며 크레인을 타고 축제 차량에 탑승해 카니발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황금색 양복을 입고 관중들의 박수갈채 속에 차량에 오른 호나우두는 부모와 장남 호나우지가 반기는 가운데 축제장을 순회했다. 축제장에는 명문 축구팀 SC 코린티안스의 안드리스 산쉬스 전 회장도 참가해 브라질 축구 역사상 빠질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인 호나우두의 참석을 축하했다.

그동안 상파울루 카니발은 리우데자네이루 카니발에 비해 덜 유명해 유명인의 참석률이 저조했으나 이번 기회에 일정 부분을 만회하게 된 셈이다.

산쉬스 회장은 "중요한 것은 브라질 전체에 상파울루 카니발이 점점 더 커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한편 카니발 기간 중 브라질 리우데네이루시는 노상방뇨로 골머리를 앓았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에서는 노상방뇨를 한 관광객 100여 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시 공공질서국은 카니발 기간 중에 길거리에 소변을 본 117명을 적발해 경찰서로 이관했다. 이 가운데 여성이 24명이고, 외국인도 두 명 포함돼 있었다.

축제 기간 동안의 무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된 이번 '노상방뇨단 습격' 작전은 경찰과 부서 요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이 카니발이 열리는 주변 거리를 단속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단속은 철창과 천막 같은 불법 시설을 철거하거나 불법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는 등 관광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그라피티 그리기 특정공간 만든다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는 '세계에서 가장 알록달록한 도시'로 불린다. 거리 곳곳을 장식하고 있는 그라피티가 이런 '오명'을 붙여준 것. 콜롬비아 경찰 당국은 그간 불법으로 규정된 그라피티 예술가들과 전쟁을 벌여왔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그라피티를 그리던 남성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 예술가와 경찰 사이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았다.

이에 콜롬비아 문화부가 발 벗고 나섰다. 긴장을 해결할 핵심 열쇠는 바로 '그라피티 학교'. 공통의 배움 공간을 만들어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최근 그라피티 전문가들과 경찰 당국 사이에 대화 테이블을 마련했고, 보고타 시내에서 자유롭게 그라피티를 연습할 수 있는 벽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클라리사 루이스 문화부 장관은 "공공 공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주의를 위한 무대가 돼야 한다"면서 "벽은 새로운 광장이다. 시민들은 이것을 통해 얘기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타시 경찰 범죄예방국장 하이로 토레스는 문화부가 중재한 협상을 마무리한 후 "더 나은 도시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라피티 예술가 대표로 참석한 후안 카를로스 쿠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다. 억압이 아닌 교육을 제공한 당국에 고맙다"며 협상 결과에 만족을 표시했다.

콜롬비아 국립대학에 설치될 이 학교의 총 정원은 150명이다. 그라피티 예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경찰도 수업에 참여한다.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5개의 강좌가 운영될 예정이다. /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6일>

코스피	1975.62	(+4.38)
코스닥	540.33	(+3.56)
금리(국고채 3년)	2.90	(변동 없음)
환율(원·달러)	1065.50	(–5.00)

뉴스&뉴스

엔카-호주 카세일즈닷컴 글로벌 중고차 기업 합작

●SK C&C는 호주 1위 온라인 자동차 기업 카세일즈닷컴과 글로벌 중고차 온라인 유통 전문 합작기업(JV)을 설립한다고 6일 밝혔다. SK C&C는 엔카의 온라인사업 부문을 분리해 에스케이엔카닷컴이라는 신설 법인을 설립하고 호주 카세일즈닷컴에 해당 법인 지분 49.9%(24만9999주)를 1175억원에 매각한다. 양사는 각자 보유한 혁신적 사업 모델과 자동차 전문 콘텐츠, 딜러 지원 솔루션 등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에스케이엔카닷컴을 글로벌 넘버원 수준의 중고차 온라인 유통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이재영기자

이덕훈 신임 수출입은행장



●기획재정부는 이덕훈(65·사진) 전 우리은행장을 수출입은행장으로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신임 행장은 1981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대한투자신탁 사장과 우리금융지주 부회장, 우리은행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행장은 취임 이후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우리은행을 3년 연속 대규모 흑자로 전환시키는 등 강한 업무 추진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 /김민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기업 53% 채용시 지원자 SNS 본다

갈수록 험난해지는 취업 관문을 넘으려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가 기업 인사담당자 318명을 대상으로 '소셜 채용 실태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53.8%가 SNS를 채용에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25.2%는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대답해 SNS 채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소셜 채용에 활용하는 SNS로는 페이스북이 67.3%(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다.

블로그(59.4%), 트위터(25.5%), 링크드인(6.4%), 웰던투(1.2%) 등이 뒤를 이었다.

/이국명기자 kmlee@

막혔던 M&A시장 빗장 풀린다

구조조정 활성화 대책…무분별한 '중소기업 사냥' 우려도

사모펀드가 기업인수·합병(M&A) 시장에서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의 걸림돌이 제거되고 대기업이 구조조정 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업 간의 M&A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 사냥꾼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인수·합병에 나설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M&A 시장을 살려 기업이 자율적 사업구조 재편으로 핵심 역량에 집중하도록 유도해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자본 여력이 있는 금융사와 재계의 M&A 활성화를 위해 조성·투자, 관리, 회수 등 단계별로 제약 요인을 완화하기로 했다.

조성·투자 단계에서 사모펀드가 기업 지분 외에 사업 부문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 사전 신고가 면제되는 보험사의 사모펀드 출자 한도를 15%에서 30%로 올린다.

원유, 제철 원료, 액화 가스 등 대량 화물 화주가 구조조정중인 해운사를 '자기화물운송 30% 제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인정하되 '금융·보험사 자산 20조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인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고 세제 지원책으로는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기업 간 주식 교환 시 주식 처분 때까지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하기로 했다.

기술 혁신형 M&A 시 법인세 공제 범위를 벤처 등 중소기업에서 이노비즈기업(중기청이 지정하는 기술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 지원책도 마련해 성장사다리펀드 내 중소·중견기업 M&A 지원펀드 4000억원 규모를 올해 마련하고 3년 내 1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여기에 정책금융기관, 채권은행, 연기금 등이 출자하는 1조원 이상의 사모펀드도 조성, 매수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투자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가이드라인이 완화됨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사모펀드나 기업 사냥꾼들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나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는 유리할 것으로 보면서도 경영권 분쟁이 늘어날 단초를 마련해준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박정원기자 pjw89@metroseoul.co.kr



현대백화점 '발리' 매장 오픈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다시 문을 연 스위스 패션 브랜드 발리 매장에서 모델들이 발리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패션기업 한섬은 지난해 발리 국내 판권을 인수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부산점을 시작으로 국내 영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불황 맞아? 백화점서 왕창 샀네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씀씀이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신협회가 신용카드 승인 금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백화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여신협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상위 10대 업종의 카드 승인 금액은 25조64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조1500억원 증가했다.

카드 승인 상위 10대 업종은 일반음식점, 주유소, 인터넷 상거래,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공과금 서비스, 백화점, 국산 신차 판매, 보험, 약국 등이다.

이들 업종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업종이 백화점이다. 지난 2013년 1월 1조800억원이었던 백화점 카드 승인액은 12월 1조5200억원으로 늘더니 올 1월에는 1조6500억원까지 치솟았다.

1년 새 5700억원 늘어 52.2%나 증가했다. 뒤를 이어 공과금 승인액이 32.6% 늘었고 슈퍼마켓과 대형할인점도 각각 21.8%, 20.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박정원기자

올해 600대 기업 133조 투자한다

국내 600대 기업들은 올해 1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금융업 제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년 투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6.1% 증가한 133조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600대 기업 중 올해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255개사)이,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기업(145개사)보다 1.8배 가량 많았다. 올해 투자를 확대하려는 이유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행투자'(24.4%), '신제품 생산 및 기술개발 강화'(23.5%) 등 '신규사업 진출'(22.5%)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 테이퍼링과 신흥국 불안, 내수 부진 등 대내외 경영 환경이 불투명하지만 기업들이 경쟁력 제고와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선행투자에 나설 계획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투자 계획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지난해보다 6.5% 증가한 86조원이었고, 비제조업은 5.4% 증가한 47조원으로 집계됐다.

/김태균기자 ksgit@



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6년연속 소주부문
국가고객만족도 1위
어느 부드러운 봄날
처음처럼
HAPPY SHAKE!
흔들어 마시는 물이 좋은 소주
처음처럼
부드러운 18도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LINE 미·일 증시 상장

연내 추진… 넥슨 이어 해외 공모 대박 예고

네이버의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이 국내 최대 게임사인 넥슨에 이어 일본 주식시장에서 제2의 금융 한류를 일으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인을 운영하는 일본 법인인 '라인주식회사'는 올해 미국과 일본 동시 상장(IPO)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 5일 한때 시가총액 4위 자리에 오르기도 하며 숨 가쁜 주가 고공 행진을 이룬 네이버가 이번엔 자회사의 글로벌급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라인의 해외 상장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공영규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라인이 상장되면 초기 반응이 넥슨보다 더 폭발적일 수 있다"며 "일본의 거의 모든 인구가 라인을 쓴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에서 라인과 연계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무궁무진하며 실제로 관련 게임·인터넷·전화 등의 부문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뿐만 아니라 라인의 미국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공 연구원은 "최근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가 적자 실적을 내는데 반해, 라인은 실적과 성장성 면에서 더 견조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미 상장 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권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해외 증권시장에서 라인을 서로 유치하려고 한다"며 "넥슨 이상의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넥슨은 지난 2011년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에 상장할 당시 한화 1조원 넘는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서 당시 상장 규모로 일본 1위를 차지했다.

다만 라인의 해외 상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소프트뱅크·알리바바 투자설도

일본 2위 통신업체이자 재일동포 사업가인 손정의 회장으로 잘 알려진 소프트뱅크나 중국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라인 지분 투자설도 불거졌으나 네이버에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라인이 지난해 말 TSE에서 토요타에 이어 시가총액 2위에 오른 소프트뱅크나 올해 미국 상장을 준비하며 페이스북에 버금가는 기대감을 받는 알리바바와 손을 잡을 경우, 라인의 글로벌화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대한상의, 현 부총리 초청 간담회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현오석(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민·관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용만(오른쪽) 대한상의 회장과 현오석 부총리가 간담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수도권-지방 집값차 10년래 최저

수도권과 지방 간 집값 격차가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3.3㎡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2007년 1253만원에서 2013년 말 1126만원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지방은 423만원에서 602만원으로 급등했다. 이에 따라 2007년 3.3㎡당 830만원까지 벌어졌던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 격차는 524만원으로 줄었다. 2004년(468만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처럼 아파트 매매가격 격차가 줄어든 데는 최근 몇 년간 수도권과 지방의 매매 시장이 희비 쌍곡선을 그렸기 때문이다. 수도권 주택시장은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2009년 반짝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 유럽발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집값 약세가 이어졌다.

반면 지방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실수요 회복과 세종시 및 혁신도시 개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 잇딴 개발 호재로 2009년을 기점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해 2011년에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연간 12% 이상 급등하는 등 호황을 누렸다.

특히 부산은 2007년에서 2013년 사이 3.3㎡당 아파트값이 480만원에서 735만원으로 무려 53% 상승했고, 경남도 이 기간 431만원에서 643만원으로 49% 올랐다.

/박선옥기자 pso9820@

얼룩진 흰옷 계란 껍데기 넣어 삶으면 깨끗

짠순이 주부 경제학

'흰 옷'을 입는 날엔 유독 '머피의 법칙'이 자주 일어난다.

아무리 조심해도 음식 국물이나 커피, 심지어 사인펜이 묻어 그날 기분까지 망치게 된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행주에 트리오를 뿌리고 한번 비벼준 뒤 어느 정도 마른 후에 물을 묻혀 다시 한번 닦으면 감쪽같이 지워진다. 여기서 주의할 점! 처음부터 물을 묻혀 닦으면 오히려 번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흰색 면 옷이 누렇게 변하면 입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진다. 이럴 때는 계란 껍데기를 말린 뒤 계란 껍데기를 가제수건에 싸 흰 빨랫감과 함께 삶으면 신기하게 하얗게 색상이 바뀐다. 흰옷을 삶지 않는 방법도 있다. 세탁할 옷에 가루비누를 칠해서 투명한 봉지에 넣고 햇볕에 20~30분 정도 놓아 뒀다 빠는 게 방법. 이렇게 하면 흰옷 색상이 더욱 희고 깨끗해진다.

와이셔츠를 다릴 때 옷이 타 누렇게 될 때가 있다. 이때는 재빠르게 옥시풀을 거즈에 묻혀 가볍게 짠 뒤 그 위에 올려놓으면 누른 기가 빠진다. 그 위에 타월을 올려놓고 다시 다림질을 하면 원상태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

양복을 잘못 다려 번들거릴 때는 물 한 컵에 암모니아를 티스푼 1개 분량 정도 타서 뿌리거나 타월에 적셔 번들거리는 부분을 닦은 뒤, 받침천을 대고 다리면 된다.

/김민지기자 minji@

이통 3사 45일 사업정지

미래부 최소 제재안 확정…막판 보조금 대란 재현 우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이르면 12일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앞두고 또다시 보조금 대란이 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래부는 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어긴 이통 3사에 대한 제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이통 3사에 대한 최소 45일 이상의 사업정지는 사실상 확정했다"면서 "다만 사업정지 기간 기기 변경마저 금지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방통위와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문기(오른쪽)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들과 보조금 과잉 경쟁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찬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이 같은 제재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 이통 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위법 행위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데이터요금 30% 인하나 유심 가격 20% 인하 등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사업정지 기간 중소 제조사나 유통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지원할 만한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실상 각 사별 45일의 이통 3사 영업정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앞두고 또다시 보조금 대란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211대란, 226대란, 228대란, 301대란 등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 보조금 대란은 지난 1일 혹은 5일부터 이통 3사 영업정지가 이뤄질 것이라는 허위 소식 속에 마지막 보조금이라며 살포된 것이다. 막상 이통 3사가 영업정지 일정이 공개되면서 이를 앞두고 보조금을 대거 살포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휴대전화를 바꾸려는 이들의 잠 못 드는 밤이 또다시 이어질 것 같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제재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를 또다시 위반할 시 강력한 법적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한 국장은 "재차 시정명령 불이행을 하게 되면 징역 3년 이하, 벌금 1억5000만원까지 형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이번 조치 역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이통 3사에서 이를 고려해 자정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임산부 일하기 편한 기업들 눈길

내일 '세계 여성의 날'

"지난달 회사에 임신을 알렸더니 '임신 중'이 표시된 핑크색 사원증을 받았어요. 사원증 색깔이 바뀌니 엘리베이터나 구내식당 이용할 때면 다른 직원들이 먼저 양보해주네요."-한화생명 최진영 매니저

국내 기업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기업 내 여성의 위상을 분석한 결과, 채용 방식과 조건 등에서 시작된 변화가 여성 리더를 키우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화생명은 임신한 직원에게 분홍색 출입증 홀더를 포함해 허리 쿠션·태아 앨범 등 '맘스 패키지' 세트 지급과 함께 임신 기간 중 1개월간 근무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토록 했다.

현대자동차는 출산한 여직원을 위해 사업장 내 여성휴게실을 설치하고, 출산 후 모유 착유 시간을 1일 120분 보장하고 있다. GS건설과 대한항공은 아이를 갖기 어려운 여성을 대상으로 난임(불임) 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996년 개원한 '수원 디지털시티'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사업장에 서 10개의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다. /김두탁기자 kimdt@



가격 부담 줄인 태블릿 '갤럭시 탭 프로' 출시 삼성전자가 휴대성은 극대화하고 가격 부담은 낮춘 포터블 사이즈 태블릿 '갤럭시 탭 프로'를 6일 국내에 출시한다. 사진은 삼성전자 모델이 신제품 갤럭시 탭 프로를 선보이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짧은 봄 가기전 에어컨 예약! 동부대우전자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2014 에어컨 예약판매 대잔치'를 진행한다. /동부대우전자 제공

<상환 전환 우선주>

건설사 RCPS 발행 열기

두산 4000억·SK 3800억 등 차입금 상환에 활용

회사채 시장에서 밀려난 비우량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상환 전환 우선주(RCPS) 발행에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차입금 상환에 비상이 걸린 건설사들이 대거 몰렸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두산건설은 4000억원 규모로 상환 우선주를 발행했고 롯데건설(1300억원), SK건설(3800억원) 등도 차입금 부담 해소를 위해 상환 우선주를 활용했다.

올 들어서는 이랜드리테일이 3500억원 규모의 상환 우선주 발행을 추진 중이다.

상환 우선주는 특정 기간 동안 우선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가 일정 기간 내 상환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다. 실질적으로 부채와 비슷하지만 요건 충족 시 상법과 회계 처리상 자본으로 분류돼 기업의 자본 확충 효과가 있다.

다만 기업 수익을 전제로 하므로 채권보다 변제 순위가 낮은 등의 단점도 있다.

최근 한계기업들은 돈줄 마련을 위해 상환 우선주에까지 눈을 돌렸다. 주요 건설사들의 경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5조원 규모이며 이 중 상당수가 3~4월에 몰려 있어 자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조달 창구가 마땅치 않다. 국내 회사채 시장은 우량 등급인 AA등급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이뤄지고 있다.

한계기업이 비교적 저렴하게 발행할 수 있었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지난해 8월 경영진의 지분 확보와 편법 상속수단 악용 지적에 금지됐다.

강승민 NH농협증권 연구원은 "다만 향후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시 주가 희석 우려가 있다"며 "특히 상환 우선주 발행과 감자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현대차 정몽구 회장 "디자인! 디자인!"

유럽 디자인센터 방문… 주행성능 등 감성 역량 향상 강조


정몽구(오른쪽 셋째) 현대차그룹 회장이 유럽디자인센터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유럽디자인센터를 찾아 차량 성능과 디자인이 함께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유럽으로 출국한 정 회장은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과 현대차 체코 공장을 시찰한 데 이어 5일(현지시간)에는 독일로 이동, 뤼셀스하임에 위치한 현대차 유럽디자인센터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우리 차 디자인이 점점 좋아지면서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디자인 때문에 선택받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다"며 "그동안 뛰어난 디자인 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디자인센터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치하했다.

이어 정 회장은 "지금까지 만들어온 현대·기아차 디자인 DNA를 끊김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업계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되, 이와 함께 품격이 깃든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정 회장은 "최근 현대·기아차는 자동차 주행 성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디자인 역시 이와 함께 도약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벼우면서 강도가 높은 고장력 강판이 대거 적용되면서 차의 기본 성능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며 "여기에 훌륭한 디자인까지 더해진다면 고객에게 더 큰 만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이 유럽디자인센터를 직접 찾아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글로벌 업체 간 자동차 기술 수준이 점차 동등해지면서 주행 성능과 디자인처럼 소비자들의 감성적 만족을 높여 차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대차가 신형 제네시스를 출시하면서 가장 중점에 둔 것은 바로 '주행 감성'이었다. 신형 제네시스는 제품 기획 단계에서 유럽의 고급 대형 세단과의 직접 경쟁을 염두에 두고, 경쟁 유럽차들의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넘어서는 차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로 탄생한 현대차의 야심작이다.

이를 위해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9월 독일 뉘르부르크링 서킷과 바로 연결이 가능한 '유럽 테스트 센터'를 완공하고 본격적인 주행 성능 개선 연구에 돌입한 바 있다.

이어 현대차는 이러한 제네시스의 주행감성에 걸맞도록 기존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인 '플루이딕 스컬프처'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킨 '플루이딕 스컬프처 2.0(Fluidic Sculpture 2.0)'을 선보였다.

한편 4일과 5일 이틀간 유럽 내 생산, 판매 법인과 연구소를 둘러본 정 회장은 6일 러시아로 이동해 현대차 러시아 생산법인에서 현지 생산, 판매 전략을 숙의할 계획이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플립보드, CNN 자이트 인수



모바일 뉴스 플랫폼 플립보드가 페이스북 '페이퍼'와 대결하기 위해 몸집을 불렸다. 미국의 케이블 뉴스 채널 CNN이 소유한 디지털 잡지 플랫폼 '자이트'를 인수했다.

플립보드(사진)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이용해 잡지를 넘기듯 일간지나 주간지를 읽을 수 있게 한 신개념 뉴스 플랫폼이다. 모바일 기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서비스라는 찬사를 줄곧 받아왔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최근 비슷한 서비스인 '페이퍼'를 오픈하면서 플립보드의 앞날이 평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건 사실이다.

6일 외신에 따르면 플립보드와 CNN은 공동 전화회의를 거쳐 자이트 의매각·인수를 발표했다. 거래액수 등 상세한 조건은 전해지지 않았다.

CNN은 자이트의 전체 실사용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플립보드보다 적다"고만 밝혔다.

플립보드는 자이트를 인수한 뒤 자사의 본 서비스에 통합키로 했으며 자이트의 엔지니어와 개발자들을 입사시킬 예정이다.

CNN은 자이트 매각 이후 플립보드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되 인기 시사 프로그램들에 한해서는 별도로 디지털 잡지를 만들기로 했다. /박성훈기자 zen@


대한항공 스카이 팀, 가루다인도네시아도 품다 대한항공이 주도하는 항공 동맹체인 스카이 팀이 인도네시아의 국영 항공사인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을 영입하면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 하늘길이 더욱 넓어지게 됐다. 스카이 팀은 5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의 물리아 리조트 호텔에서 지창훈 대한항공 총괄사장, 에미르샤 사타르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회장 및 스카이 팀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의 가입 기념행사를 가졌다. /대한항공 제공

말리부 디젤 시판



한국GM이 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말리부 디젤(사진)을 공개하고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지난달 27일부터 생산에 들어간 말리부 디젤은 GM 유럽이 개발하고 독일 오펠이 생산한 2.0 디젤 엔진과 아이신의 2세대 6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했다.

말리부 디젤 엔진은 최고 출력 156마력을 내며 1750~2500rpm 구간에서 35.8kg·m의 최대 토크를 낸다. 또한 첨단 분사 시스템을 통해 소음을 제어하는 한편 가변형 오일펌프를 통해 연비를 개선했다.

캐딜락과 오펠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아이신 자동변속기는 응답성과 효율을 개선해 도심 연비 11.9km/ℓ, 고속도로 연비 15.7km/ℓ, 복합 연비 13.3km/ℓ를 나타낸다.

말리부 디젤의 가격은 LS 디럭스 2703만원, LT 디럭스 2920만원으로 정해졌다. 발표회에 참석한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소비자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중형차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의택기자

암·골절·사망보장 다 되는 보험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지만 중년 사망 원인 1위인 암은 아직까지도 누구에게나 무서운 증병 중 하나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암보험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암 대비만 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한 명당 연간 보험료가 300만원을 넘어섰다. 이미 암보험에 가입은 돼 있지만 갑작스러운 상해로 인한 병원비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골절보험과 사망보험 가입을 고려 중인 사람들에게 높은 보험료는 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다.

AIG '무배당 슈퍼(Super)큰병이기는보험1304'는 이런 보험 고민을 덜어 줄 상품이다. 암보장, 골절보장, 사망보장 모두 선택계약을 통해 이 상품 하나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암 진단 시 진단금은 물론 선택계약으로 수술비, 입원일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가 별도로 보장된다. 여기에 큰 병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금이 보장돼 암과 큰 병 모두 대비 가능하다. 특히 다른 암보험이 있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어 예전에 들어둔 암보험 보장 금액이 적다면 AIG '무배당 Super큰병이기는보험1304'로 암 보장 금액을 더해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다. 문의 전화: 080)432-0168

/박정원기자

결혼·일·삶 고민… “멘토 만나 큰 도움”

사노피 코리아 여성의 날 맞이 직원 대상 ‘멘토링 콘서트’ 열어

한 회사의 임직원들이 멘토와 멘티가 돼 서로의 고민을 해결하는 자리가 열렸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 코리아는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지난 5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노피 멘토링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어떤 배우자와 결혼해야 하는가?-행복한 나의 삶과 일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멘토링 콘서트는 사노피가 추구하는 다양성(Diversity) 존중을 위한 9가지 과제 중 ▲일과 삶의 균형 ▲성별의 균형 ▲세대 간 화합 ▲부모 역할에 대한 존중의 4가지 측면을 담아 기획됐다.

또 이 항목에 대한 자유로운 소통과 접근을 위해 미혼, 워킹맘, 워킹대디를 대표하는 ▲김똘미 사노피-아벤티스 의학부 상무 ▲박희경 사노피 희귀질환사업부(젠자임) 사장 ▲신동우 사노피-아벤티스 컨슈머헬스케어팀 전무가 멘토로 참여했으며 ‘캣우먼’으로 유명한 연애 칼럼니스트이자 작가인 임경선씨가 진행자로 나서 공감 가는 멘토링을 이끌어냈다.


사노피 코리아 임직원들이 ‘사노피 멘토링 콘서트’를 통해 서로의 고민을 얘기하며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노피 코리아 제공

멘토링 콘서트는 ▲임직원 서베이 결과 발표 ▲패널 토의 ▲그룹 멘토링(워킹맘&대디팀, 미혼 직원팀)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패널 토의에서는 결혼과 육아, 연애에 대한 직원들의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고 멘토들은 자신들의 에피소드를 솔직하게 얘기하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진 각 멘토와의 그룹 멘토링에서는 직원 개인이 처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멘토로 콘서트에 참여한 박희경 사장은 “사실 결혼을 하면 육아, 집안일 등으로 회사 일에만 몰두하기 어렵다. 이를 고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내가 지나오면서 답을 찾아온 과정과 경험을 전달해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살피면 회사 안에서도 도움을 줄 사람이 많다는 점을 조언하고 싶고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자리를 만들어준 회사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멘티로 고민을 얘기하던 이민경 커뮤니케이션 및 기업사회공헌팀 대리는 “멘토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 이번처럼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다양성 존중을 위한 과제는 사노피의 가치이자 사노피 코리아가 추구하고 발전시키려는 기업 문화로 사노피 코리아는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사노피 코리아의 제약사업 부문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다양성 존중의 공로를 인정받아 ‘가족 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새학기 증후군, 건강기능식품 있잖아

성장기 필수성분 들어있는 제품 뭐가 있나

봄이 시작되는 3월은 우리 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다. 특히 새 학기 규칙적인 생활 패턴과 바뀐 환경을 접하는 아이들은 새 학기 증후군으로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이때는 균형 잡힌 식습관을 통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 면역력을 높이고 체력을 길러줘야 한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편식과 불규칙적인 식사, 패스트푸드 등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성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한다.

먼저 고려은단의 ‘비타플렉스 포 틴즈’는 성장기 청소년을 위한 종합 비타민이다. 국내산 6년근 홍삼 농축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타민 C, 비타민 E 등 11가지 주요 비타민과 철, 아연, 구리 등 6가지 미네랄이 함유돼 있다. 특히 고려은단은 국내산 홍삼 농축액을 비롯해 영국, 독일, 스위스 등 성분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00% 공개하고 있다.

또 세노비스의 ‘키즈 츄어블 오메가-3’는 DHA 공급과 눈 건강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다. 뇌세포 및 망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 3의 핵심 원료인 DHA와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는 것. 더욱이 바다 동물 모양의 캡슐과 오렌지 맛으로 제조돼 아이들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

그린스토어의 ‘얼라이브10 프로바이오틱스’도 있다. 장내 유익균 증식을 촉진시키고 유해균을 억제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단체 생활을 통해 다양한 감염원을 접하면서 질병에 노출되는 아이들에게 꼭 맞는 제품이다. 게다가 제품은 건강한 사람의 장에 살고 있는 균들로 섭취 시 장내 균형을 맞춰 주는 역할을 한다. /황재용기자



현대약품 대학생 마케터 수료식 8주 동안의 활동을 마친 ‘현대약품 대학생 마케터’ 10기 학생들이 최근 열린 수료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들은 현대약품의 식품 및 의약품 브랜드 홍보를 위한 콘텐츠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제작·실행하는 등 실질적인 마케팅 업무를 체험했다. 현대약품은 참가자 전원에게 수료증 및 소정의 활동비를 전달했으며 예비 마케터를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약품 제공

‘세상을 바꾼 발견-식물’ 영상



뉴트리라이트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뉴트리라이트 80년 세상을 바꾼 발견-식물’ 영상(사진)을 공개했다.

뉴트리라이트는 80년간 지켜온 철학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 ‘세상을 바꾼 발견’이라는 주제로 ▲식물 ▲토양 ▲농축 ▲더블엑스 ▲뉴트리라이트 등 총 5가지 테마의 특별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이번에 공개된 식물 영상은 그 시작을 알리는 첫 작품이다.

이번 영상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영양소이자 뉴트리라이트 철학의 근간인 식물 영양소를 발견하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영상은 뉴트리라이트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뉴트리라이트는 지난 4일 창립 80주년을 기념하는 브랜드 스토리북을 출시하기도 했다. /황재용기자

뉴스 & 뉴스

복합항생제 ‘목사멘틴정’ 출시

● **JW중외신약**이 복합 항생제인 ‘목사멘틴정’(375㎎)을 출시했다. 목사멘틴정은 페니실린계 항생제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란산’의 복합제로 급·만성 기관지염을 비롯해 기관지 폐렴·편도염·부비동염·중이염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 JW중외신약은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연구·개발 MOU

● **한국오츠카제약**은 오츠카제약 본사가 보건복지부와 연구·개발(R&D) 투자 협력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오츠카제약은 향후 5년간 8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모토 다로 오츠카제약 사장은 “기초부터 후기 임상까지 전 영역에 걸쳐 투자를 강화하고 한국 제약 산업의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마스틱 울트라’ 마케팅

● **한국메나리니**가 흉터 전문 개선제 ‘더마틱스 울트라’의 TV 광고를 선보이며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다. 더마틱스 울트라는 생활, 화상, 수술 흉터를 비롯해 켈로이드 흉터 개선에 효과적인 제품으로 이번에 공개된 TV 광고는 더마틱스 울트라를 소개하고 흉터 관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 광고모델은 방송인 백지연씨가 맡았다.

라이엇게임즈 역사교육·문화재 보호 앞장

유산 정찰대·유물 체험 등 젊은층 LoL 플레이어 대상 사회환원 활동 지속 전개 최근 조선시대 희귀 불화 국내반환 성공시켜 화제





지난 1월 7일 라이엇게임즈 이승현 한국 대표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미국 허미티지박물관이 소장해 온 조선시대 대형 불화 '석가 삼존도'의 국내 반환 성공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LoL 플레이어들이 '문화재 지킴이' 역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기념촬영한 모습. /라이엇게임즈 제공

숭례문 복원과 이념 편향 역사 교과서 채택 논란 등으로 우리 역사와 소중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청소년들의 역사의식 함양에 꾸준히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 있다.

주인공은 인기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LoL)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라이엇게임즈다. 라이엇게임즈는 플레이어 대상의 역사 교육 행사를 꾸준히 개최해 직접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문화재 반환 활동을 비롯한 문화재 보호 및 지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문화유산 정찰대' 뜨거운 호응

라이엇게임즈는 최근 LoL의 인기 챔피언(캐릭터)인 '티모'(아래 사진)의 인형과 함께 주변의 문화유산 사진을 촬영하는 활동을 수행할 '티모와 함께하는 문화유산 정찰대'를 모집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총 40명을 선발하는 이번 행사는 무려 25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성원 속에 완료돼 라이엇게임즈의 문화재 지원 활동에 대한 플레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이벤트는 LoL이 서비스되는 모든 지역에서 지역별 특색을 반영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형태로,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춰 활발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라이엇 게임즈의 문화재 관련 사회 환원 활동과 연계해 마련됐다.

정찰대는 곧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며, 향후 활동 내용은 특별 웹 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의 플레이어들과 공유될 예정이다. 현장 스케치 형식으로 이벤트에 참가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참가자는 물론 LoL 플레이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청소년 및 20~30대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소중한 계기를 제공할 전망이다.

◆플레이어 대상 역사 교육 프로그램

라이엇게임즈는 이외에도 2012년 10월부터 월 1회 이상 꾸준히 플레이어를 대상으로 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재 지킴이 플레이어 참여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한 플레이어가 직접 참여해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와 왕실 유물 관람 등의 체험 행사 참여 등을 진행하는 것. 2011년 처음 시행한 후 큰 호응에 힘입어 이듬해인 2013년부터는 월 1~2회의 활동으로 확대 진행됐다.

현재까지 총 10회에 걸쳐 역사 교육에 참여한 LoL 플레이어는 약 340여 명으로 총 30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됐다. 각 플레이어들이 이수한 교육 시간을 모두 합치면 무려 1만200시간에 달할 정도.

◆문화재 반환 성공

라이엇게임즈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과 역할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 왔다. 특히 지난 1월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및 문화재청과 협력해 미국 버지니아주 노포크 소재의 '허미티지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조선시대의 희귀 불화인 '석가 삼존도'의 국내 반환에 성공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 사례는 가치를 논할 수 없는 우리 문화재의 반환을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뤄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외국계 기업이 문화재 반환 사업에 참여한 최초의 사례란 점도 주목받고 있다.

구기향 라이엇게임즈 홍보팀장은 "라이엇게임즈는 플레이어는 물론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회 환원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프린세스메이커' 엔딩 콜렉션 흥미롭네

게임 포털 엠게임의 모바일게임 기대작 '프린세스메이커 for Kakao'가 출시를 앞두고 게임의 주요 시스템인 '엔딩 콜렉션'의 스크린샷과 관련 정보를 6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개했다.

엔딩 콜렉션은 행동대장, 부호의 아내, 작가 등 다양한 직업으로 성장한 딸의 모습을 그린 카드를 한 곳에 모아놓은 형태다. 각 카드에는 유저가 딸을 어떻게 키웠는지에 따라 직업별 난이도 S~D등급과 별점이 매겨져 있다.

난이도가 가장 높은 S등급 직업의 딸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딸들을 성장시켜 가문을 만들고 그 가문 등급을 올려야 한다. 또 같은 등급의 직업에서도 해당 직업에서 주요한 능력치의 달성도에 따라 별점이 부여되며 엔딩의 스토리도 달라진다.



유저들은 S등급 여왕, 장군, 왕비부터 D등급의 가사도우미, 각종 아르바이트까지 직업별로 각기 다른 별점과 스토리가 담긴 219개의 엔딩 카드를 획득할 수 있다.

'프린세스메이커…'는 지난달 28일 오픈한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princessmobile)에서 신규 이미지, 게임 정보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13일까지 '좋아요'를 누르면 총 100명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박성훈기자

판타지 모험 RPG '별이 되어라!' 인기몰이

앱스토어 무료게임 1위

게임빌이 최근 출시한 판타지 모험 모바일 RPG '별이되어라!'가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CJ넷마블의 '몬스터 길들이기'와 같은 베스트셀러를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별이되어라!는 출시 직후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각종 인기 차트에서 상위에 올라섰다. 출시 1주일 새 애플 한국 앱스토어 전체 무료 게임과 게임 매출 순위 1위를 차지했으며 현재도 애플 앱스토어 게임 매출 3위,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게임 매출 5위 등 인기몰이 중이다.

특히 반짝 인기를 얻는 게임과



달리 지속적으로 상위 랭킹을 고수하면서 선두권 게임들을 바싹 추격하고 있으며, 롱런 게임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게임빌의 노하우가 더해져 장기적으로 세몰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별이되어라!의 성공 요인은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RPG의 게임성'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중 '그래픽'과 '레이드'가 돋보인다는 평이다.

이 게임은 세련된 그래픽과 스킬 효과로 보는 재미가 있으며 기존 RPG와 비교해 애니메이션 연출이 뛰어나다. 4명의 친구와 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는 레이드 플레이의 강점도 입소문을 타고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남녀노소 다양한 유저층이 쉽게 즐길 수 있으며 게임빌의 강점인 안정적인 서버 운영과 게임 서비스 운영으로 올해 새로운 스테디셀러로 부상하고 있다.

/박성훈기자

초기 디스크 질환엔 도수 감압 운동 치료!

재발 잦은 중기·말기 단계도 10분 고주파로 끝
일자목 및 오래 앉아 생긴 목·허리 통증도 개선

30대 여자 회사원 B씨는 오랜 직장 생활로 목이 늘 뻐근하고 어깨가 무겁거나 뭉친 느낌을 자주 받아 회사 근처 한의원과 정형외과를 찾아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호전이 없어 좀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자 유명 연예인들 및 세계인들이 찾는 강남초이스병원을 내원했다.

김상욱 강남초이스병원 홍대점 원장은 일자목이 오래돼 거북목으로 변형됐으며 경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제4~6 경추 간 추간판 탈출증이 동반된 상태라고 B씨를 진단했다. 이에 김 원장은 경추 신경 주사 치료를 실시했으며 이후 B씨는 비수술 척추치료센터에서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치료받았던 경추 도수·감압·운동치료를 일주일에 1~2회씩 3개월간 받았다. 현재 B씨는 별다른 통증 없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

◆체계적 치료 위한 맞춤형 진료

이처럼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만성 목 통증 및 어깨 통증, 일자목에 의한 두통이나 목 뻐근함, 만성 허리 통증 및 골반 트러짐 증상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보다는 일시적인 증상의 호전만 주는 침치료, 추나요법, 교정치료, 약물치료, 신경성형술 등만 받다 결국 허리 및 목디스크 질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강남초이스병원은 내원 환자의 증상 및 질환에 따라 척추 전문의가 먼저 진료한 후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환자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환자 1명을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척추 치료를 선진·체계화시켰다.



/강남초이스병원 제공

또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잘못 자리 잡은 척추관절과 뼈를 바로잡아 눌린 신경 압박을 감소시키는 도수치료와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감압치료, 그리고 디스크로 약화된 관절, 근육 및 인대를 강화시키면서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운동치료를 병행한다.

현재 강남초이스병원은 서울대입구역 본원 외에 여의도역 및 홍대입구역에 직장인들 및 중장년층들을 위한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골반 불균형·휜다리·측만증 등) 전문 치료클리닉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3차원 생역학 디스크 및 관절치료센터, 연골과 인대 치료 및 재생센터를 설립해 환자의 치료를 돕고 있다. 문의: 서울대 본원 02)875-2200·여의도점 02)786-2200·홍대점 02)336-2200 /황재용기자



100% 거품 맥주 '밀코' 어떤 맛일까 필스너 맥주의 효시인 '필스너 우르켈'은 아시아 최초로 100% 거품으로만 즐기는 '밀코(Milko) 맥주'를 맛볼 수 있는 팝업스토어 '필스너 우르켈 팝업 인 서울'을 서울 이태원동에 오픈한다고 6일 밝혔다. /필스너 우르켈 제공

지식 오픈마켓 '산업인' 리뉴얼 오픈

PC 기반의 온라인 마켓과 스마트폰 기반의 소셜 마켓 등의 서비스가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온라인 마켓 등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산업 분야와 귀농 지원 등의 특화된 상품을 통해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산업 포털 지식 오픈마켓 '산업인'은 지난 1일 자사 홈페이지를 리뉴얼 오픈했다. 이 사이트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상품을 판매 및 구매할 수 있는 오픈마켓 방식(전자상거래 중개업)의 쇼핑몰을 통합한 산업 전문 사이트다.

산업인은 여러 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종합쇼핑몰과 차별화하기 위해 상품 검색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오직 산업용품의 입점만을 허용하고 있다.

또 소셜 마켓 '쿠잉비'는 특색있는 귀농인 대상 판매 지원 이벤트를 준비했다. 귀농·귀촌이 사회적 트렌드가 된 지 오래지만 농수산물 생산 기술을 익혀도 판매처 확보가 어렵다는 것에 착안한 행사다.

이벤트 대상은 귀농 2년차 농수특산품 생산자들이다. 이벤트 기간 동안 가입하면 판매 수수료 최저가 할인, 상세 페이지 및 디자인 무료 제공을 받을 수 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되로 받고 말로 주는 화이트데이

밸런타인 지출의 2배 평균 6만5000원 계획

국내 소비자들이 밸런타인데이에 비해 화이트데이 때 지출을 2배 이상 많이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옥션이 자체 온라인 및 외부 조사기관 의뢰를 통해 총 334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59.2%가 '화이트데이 선물을 준비할 것'이라고 답한 가운데, 올해 화이트데이 선물 평균 비용은 6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밸런타인데이 조사에서 선물 평균 비용이 3만1400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화이트데이의 지출은 두배 수준이다. 결국 남성 소비자들의 소비가 많고 이로 인해 유통가 입장에서 보면 더 큰 대목인 셈이다.

연령대별로는 10대는 3만8700원, 20대 6만4600원, 30대는 8만2800원을 평균 선물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물 비용을 많이 쓰겠다는 것이다. 선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응답자의 56%는 'e쿠폰, 모바일상품권, e머니 등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할인 상품 구매'라는 대답은 31.3%로 뒤를 이었다.

남성들의 화이트데이 선물 준비 이유로는 응답자의 59.3%는 '밸런타인데이에 선물 준 사람에게 보답'하기 위해 준비한다고 답했다. 기혼 포함 커플의 64%는 지난 밸런타인데이에 초콜릿 등의 선물을 받은 반면, 솔로는 절반이 넘는 54%가 선물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솔로 응답자들은 '가족에게 화이트데이 선물을 할 것'(35%)이라고 응답해 선물 수요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옥션에서는 14일까지 '화이트데이 선물 완전정복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외식상품권 e쿠폰과 공연 티켓, 호텔 상품권도 최대 60% 할인가에 판매한다. 오는 14일까지 매일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화이트데이 선물 준비 비용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1000명에게는 옥션 100포인트를 지급한다.

/정영일기자

뉴스&뉴스

배상면주가 '냉이술' 출시

●배상면주가는 봄 세시주 '땅끝마을 냉이술'을 2000병 한정 출시한다. 이 제품은 해남 땅끝마을 참냉이로 빚었으며 로제 와인을 연상케 하는 핑크빛의 고운 빛깔에 냉이의 독특한 향과 알싸한 맛이 특징이다. 500㎖ 용량으로 알코올 도수는 14%이며 가격은 9800원이다.

'맥주 대통령' 뽑아주세요

●하이트진로가 2014년 최고의 맥주를 선정하는 '맥주 대통령 2014' 캠페인을 4월 20일까지 벌인다. 맥주 대통령 후보는 맥스(기호 1번)와 드라이d(기호 2번)로 한정했다. 각 제품의 모델인 배우 하정우와 가수 지드래곤이 대변인으로서 선거 유세를 지원한다. 선거 참여는 '맥주 대통령 2014' 캠페인 사이트에 접속해 투표하면 된다.



티켓몬스터의 어그부츠 판매 당시 홈페이지 화면.

티몬 '짝퉁 어그' 전액 환불

논란된 판매 뒤늦게 수습 직배송 검증 강화하기로

'짝퉁' 어그부츠 문제로 홍역을 겪고 있는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이하 티몬)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해당 제품은 그해 10월부터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9000여 켤레가 판매됐다.

지난달 26일 검찰은 가품 어그부츠 판매사건 수사를 위해 티몬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2012년 말 기획전으로 판매한 호주 어그 브랜드 부츠 중 일부가 위조 제품이라는 소비자 제보에 따른 것이다. 해당 제품을 수입해 티몬에 판매한 구매 대행업자는 불구속 기소됐지만 제품 수급을 담당한 직원이 가품 판매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티몬은 당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제품을 반납하면 전액 환불을 실시하겠다고 6일 밝혔다. 또 향후 해외 직배송 상품에 대한 검증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현재 해외 직배송 제품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갖춘 구매대행 회사는 드문 상황이다. 해외 직배송 상품의 경우 최초 샘플 제품만 확인하고 해외 상품 공급자가 바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사전 제품 확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이와 달리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샘플을 외부 기관에 의뢰해 조사한다. 또 상품이 적재된 창고를 직접 확인하고 수입 관련 서류부터 보증보험증권 발행까지 까다로운 검수 과정을 거친다. /김학철기자

타파웨어 '가장 존경받는 기업'

美 포춘 7년 연속 선정

Tupperware Brands

생활용품 브랜드 타파웨어 브랜즈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의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가정용품 부문에 7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고 6일 밝혔다.

국제 경쟁력 항목에서 가정용품 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제품·서비스 품질 ▲혁신 ▲사회적 책임 항목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타파웨어 브랜즈는 캠페인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고, 기금을 조성해 개발도상국 여성과 어린이들의 교육 및 생활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포춘은 기업의 장기 투자 가치, 재정적 안전성, 사회적 책임 등 재무 성과와 기업 명성에 관한 다양한 항목을 평가해 매년 '가장 존경받는 기업'을 발표한다. /박지원기자

'해랑' 승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 4일 용산소방서에서 명품 관광열차 레일크루즈 해랑의 승무원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기차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 고객의 안전과 생명을 확보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다양한 응급처치법이 시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강준수 승무원은 "앞으로 열차 내 위급 상황 시에도 고객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로 승무 서비스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관광개발 이건태 대표이사는 "해랑은 국내 최고의 명품 관광열차인 만큼 고객들이 믿고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지원기자

겨울 사는 女, 봄 사는 男

꽃샘추위 속 의류 쇼핑 남녀 구매 아이템 달라





따뜻한 봄이지만 여성들의 쇼핑장바구니는 아직도 춥다. 시즌오프 행사를 이용, 겨울 상품을 저렴하게 사려는 여성 고객들이 많기 때문이다.

패션 전문 쇼핑몰 아이스타일24는 올해 남성과 여성이 구매한 상품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카디건, 셔츠 등 봄 아이템의 판매율이 각각 58%, 73% 증가했고 여성은 니트·블라우스 등의 아이템이 각각 16%, 29% 증가에 그쳤다고 6일 밝혔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 겨울이 물러나면서 패딩, 코트류의 구매율이 기존 대비 30% 이상 감소한 반면 여자들의 겨울 아이템 구매율은 오히려 10% 이상 증가했다.

시즌이 끝나면서 기존 가격 대비 저렴하게 나온 겨울 패션 제품을 구매하려는 여성들이 많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쇼핑몰에서 시즌오프 세일 중인 다운·패딩 점퍼 등의 구매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최인정 아이스타일24 여성카테고리 상품기획자(MD)는 "3월은 계절상 봄이긴 하지만 꽃샘추위 등 영하권의 날씨가 종종 있어 봄 아이템과 방한 아이템 매출이 동시에 올라가는 시기"라며 "찜해뒀던 겨울 아이템이 있다면 지금이 구매하기에 가장 좋다"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김혜수 과감하게 시크하게 김혜수가 6일 2014 봄·여름 시즌 안나수이 선글라스 화보를 통해 관능미를 뽐냈다. 이번 화보에서 김혜수는 옆트임과 브이라인으로 파인 과감한 드레스를 입고 선글라스를 착용해 도시적이면서 시크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또 셔츠 사이로 매끈한 각선미를 드러내며 버터플라이 메탈 장식의 선글라스로 트렌디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안나수이 제공

'사랑을 부르는 데이트' 응모해볼까

풀스탓-영화 티켓 경품 지컷-스타일 코디 선물





패션업계가 화이트데이(3월 14일)를 앞두고 다양한 이벤트와 선물을 마련했다.

이탈리아 주문 제작 브랜드 풀스팟은 12일까지 온라인 사이트 신규 가입자 중 5명을 추첨해 5명에게 영화 '엔들리스 러브' 예매권을 증정한다. 또 14일까지 온라인몰에서 1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 선착순 10명에게도 예매권을 증정한다.

여성복 브랜드 지컷은 뷰티 브랜드 비디비치와 함께 13일까지 '로맨틱 스프링 포 유' 행사를 펼친다.

화이트데이를 맞아 화려한 변신을 꿈꾸는 패션 피플을 위한 이벤트로 지컷과 비디비치의 공식 페이스북에서 핑크·베이지·오렌지·스카이블루 등 4가지 종류의 옷과 화장이 담긴 '스프링룩'을 소개하고 투표를 받는다. 응모자 중 1명을 선정해 1위로 뽑힌 지컷의 봄옷과 비디비치의 메이크업 제품을 선물로 준다.

/박지원기자 pjw@


www.imtcast.com
때론 달콤하게 -
때론 상쾌하게 -
때론 유쾌하게 -
t나게 tv보자!
눈으로 즐기는 T-time t.cast
FX
SCREEN
FOX
DRAMA cube
CHAMP
FASHIONN
view
CINEf
FOXlife
E channel
t.cast
최강 컨텐츠 리딩 그룹!
[드라마에서 영화, 애니메이션까지… Tcast는 남녀노소 모두를 만족시키는 수준 높은 컨텐츠를 공급하는 10개의 채널을 보유한 컨텐츠 미디어 그룹입니다.]
E channel SCREEN DRAMACube view FASHIONN CINEf CHAMP FOX FOXlife FX

첫 출근 땐 화이트 셔츠를

신입사원의 옷차림 전략 무채색 톤온톤 코디 세련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직장인들에게 옷차림은 전략이다. 비즈니스 캐주얼 브랜드 마인드브릿지는 "입사 초기에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성실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면서 "격식은 차리되 자신감과 진취적인 성향을 표현하는 스타일링이 포인트"라고 조언했다.

깔끔한 오피스 패션의 기본은 화이트 셔츠와 '무채색 톤온톤' 기법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다.

남성은 흰색 셔츠와 검정 재킷을 기본으로 회색 조끼와 바지 등을 활용하면 세련된 비즈니스룩을 완성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흰색 셔츠와 검정 팬츠에 밝은 색상의 겉옷으로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박지원기자 pjw@

럭싱남 "골드미스 비켜!"

럭셔리 생활 즐기는 싱글男 '소비 큰손'으로

풍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며 럭셔리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일명 '럭싱남(럭셔리와 싱글남의 합성어)'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럭싱남은 자동차·운동·캠핑 등 아웃도어 여가 생활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고 외모와 취미 등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남성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유행을 선도하는 강력한 소비자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매트리스 브랜드 '템퍼'는 체온과 무게에 반응하는 신소재를 바탕으로 무중력에 있는 듯한 편안한 느낌을 제공하는 템퍼 자동차 시트, 템퍼 자전거 안장, 템퍼 여행용 세트 등을 선보였다.

템퍼 관계자는 "최근 템퍼의 여가 생활과 관련된 액세서리 제품에 대한 남성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활동적이고 럭셔리한 여가 생활을 즐기려는 남성들의 소비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한 온라인몰에서 생활가전 카테고리의 남성 고객 매출이 20%나 증가했을 정도로 남성들의 생활가전 구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집안일에 어려움을 느끼는 싱글남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가전이 눈길을 끈다.



가전 그룹 일렉트로룩스의 투인원(2-In-1) 무선청소기 '에르고라피도'는 슬림한 크기로 적은 공간을 차지하면서도 스틱형·핸디형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 바쁜 싱글남들이 간편하게 청소하기에 좋다. 또 LG전자의 '트롬 스타일러'는 양복·니트 등 한 번 입고 세탁하기에는 애매한 의류의 손상을 방지해준다. 세균·냄새·생활 구김 제거부터 건조·향기 추가까지 가능해 세탁과 정리가 어려운 싱글 남성들에게 유용하다.

럭싱남들은 빔 프로젝터를 집 안에 설치해 자기만의 영화관을 만드는 등 집에서 보내는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소비한다. 공간적 제약을 줄인 LG 미니빔 프로젝터는 완벽한 화질과 114% 색재현력, 무선으로 노트북과 연결하는 Wi-Di 기능이 돋보인다.

원터치로 간편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캡슐머신도 남성들에게 인기다. 네스프레소 캡슐커피 머신은 캡슐을 머신에 넣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에스프레소를 자동으로 추출해 간편하다. 또 강도와 맛과 향에 따라 16가지 캡슐 중 본인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밥 말리 선글라스' 국내 상륙

평화의 메시지 담은 브랜드 원러브 아이웨어 론칭 세일



자메이카 출신 가수 밥 말리의 정신을 담은 선글라스가 국내에 상륙한다.

밥말리풋웨어코리아는 '레게의 전설' 밥 말리의 평화 메시지 '원 러브'를 모티브로 한 선글라스 브랜드 '원러브 아이웨어'를 한국에 정식 론칭한다고 6일 밝혔다.

원러브 아이웨어는 밥말리풋웨어코리아가 직접 제작하는 100% 핸드메이드 제품과 해외 수입 제품 등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모든 제품에는 흑단나무·대나무·단풍나무 등 고급 나무 소재가 사용됐으며, 100% 수작업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나무 재질이지만 생활 방수가 되고, 무게는 20~30g 정도로 가볍다.

제품은 원러브 아이웨어 본점(삼성동 매장)은 물론 원러브몰·갤러리아몰·AK몰 등 온라인에서 판매한다. 가격은 25만원대.

한편 원러브 아이웨어는 국내 론칭을 기념해 9일까지 15% 브랜드 세일을 진행한다.

/박지원기자



바삭바삭·달콤…도미노 '더블크러스트 블루밍 피자' 출시 6일 서울 광화문 KT올레스퀘어에서 모델들이 도미노피자의 신제품 '더블크러스트 블루밍 피자'를 선보이고 있다. 더블크러스트 블루밍 피자는 바삭바삭한 더블크러스트 도우에 고급 수제 소시지와 파인애플이 조화를 이룬 메르게즈볼, 달콤한 소스로 졸여 만든 고구마 빠스를 토핑으로 올렸다. /도미노피자 제공

'디즈니 캐릭터' 패션 쏟아진다

'겨울왕국' 바람 타고 키덜트 소비자 겨냥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인기에 힘입어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20~30대 '키덜트족'이 늘고 있다. 패션·뷰티 업계는 이들을 잡기 위해 '캐릭터 마케팅'을 활발하게 펼치는 중이다.

써코니의 '그리드 9000'은 그레이·네이비·레드 색상 조합과 문양이 마치 건담의 얼굴을 연상시켜 '건담 운동화'로 통한다. 독특한 발상과 복고풍의 감성을 접목한 제품으로 국내에서만 출시됐다.

SPA 브랜드 랩(LAP)은 지난달 롯데백화점 본점에 '랩+미키 팝업 스토어'를 열어 티셔츠·백팩·운동화 등 미키마우스 제품을 판매했다. 행사 일주일 만에 당초 목표 판매 금액의 97%가량을 채웠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잡화 브랜드 브루노말리는 디즈니 캐릭터가 그려진 핸드백, 카드지갑 등 '디즈니 에디션'을, 안나수이와 에뛰드하우스 역시 미니마우스를 주제로 한 한정판을 각각 선보였다. 유니클로도 디즈니·스누피 등 인기 만화 캐릭터를 결합한 티셔츠를 올봄 주력 제품으로 내놓았다.

/김학철기자

새로 나온 화장품 공짜로 써 보세요

데코르테·더페이스샵 신상품 체험단 모집중



뷰티 업계가 봄 시즌을 맞아 다양한 '신상'을 선보이고 공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코스메 데코르테는 9일까지 신제품 '화이트로지스트 MX' 체험단 모집 이벤트를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전국 현대백화점 내 코스메 데코르테 매장에서 피부 다크닝 지수 셀프 진단과 상담을 받은 뒤 지원서를 작성한 고객 중 100명을 선정해 화이트로지스트 MX 정품을 선물로 준다. 이 제품은 다크 스폿과 칙칙한 피부톤을 맑고 깨끗하게 가꿔주는 미백 에센스로 용량은 20㎖와 40㎖ 등 두 가지가 있다.

더페이스샵은 11일까지 브랜드 홈페이지와 모바일 사이트에서 '쿠션 스크린 셀 촘촘 매끈 체험단'에 응모한 고객 3000명에게 쿠션 스크린 셀을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품을 받은 뒤 블로그 등에 우수한 후기를 남긴 고객에게는 LG전자의 휴대용 인화기 '포켓포토', 외식 상품권 등 푸짐한 선물도 증정한다.

/박지원기자 pjw@



나의 삶 담은 감동적 영화 아직 얼떨떨 ”

‘원챈스’ 들고 내한 **폴 포츠**

‘인생 역전의 아이콘’ 폴 포츠(44)가 열한 번째 한국을 찾았다. 이전 방문에서는 노래를 들려주기 위해 내한했다면 이번엔 목적이 다르다. 평범한 휴대전화 판매원에서 영국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탤런트’의 우승을 계기로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된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다룬 영화 ‘원챈스’를 홍보하기 위해서다. 13일 영화 개봉을 앞두고 만난 그는 “‘기회’는 ‘노력’을 했을 때 잡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살아있을 때 영화 나오니 실감 안 나

열한 번째 방문 아니랄까봐 여유 있는 모습으로 익숙하게 먼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전날 저녁에는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대게를 비롯해 여러 해산물을 실컷 먹었다며 껄껄 웃었다.

매년 한국을 찾을 정도로 한국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 그는 “인생 역전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데에는 책임감이 따르지만 내 삶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을 수 있다면 영광이다. 또 그로 인해 수많은 기회가 주어져 한국 같은 아름다운 나라에도 초대받을 수 있으니 좋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럼에도 자신의 삶을 다룬 영화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국에서까지 개봉되는 것은 아직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자전적인 영화는 보통 해당 인물이 죽은 다음에 나오는데 ‘원챈스’는 자신이 멀쩡하게 살아있을 때 나와서 더욱 실감이 나지 않는단다.





영화 ‘원챈스’에서 폴 포츠를 연기한 영국배우 제임스 코든. /NEW 제공

인생역전 유쾌하게 그린 작품… 노래할 때 존재감 느껴
한국 와서 해산물 포식… “일하고 기다리는 자 기회 온다”

“영화 속 삶과 실제 제 삶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삶 자체보다는 영화를 통해 보여주는 제 삶의 메시지에 관객이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 어떤 역경이 와도 불가능해 보여도 노력하면 이뤄진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기회가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고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아내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역경에 부딪혀도 꾸준히 지지해준 조력자”라며 아내 자랑도 빼놓지 않았다.

영화는 이와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폴 포츠의 삶을 무겁지 않고 유쾌하게 그려냈다. 폴 포츠는 “한국 관객이 영화를 웃으면서 보다 보면 메시지를 더욱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누군가의 롤모델이라는 것 기뻐

잘 알려져 있다시피 폴 포츠는 오디션 스타가 되기 전까진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을 살았다. 외모마저 똥똥한 체구에 작은 키라 볼품없었다. 그러나 그에겐 남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멋진 목소리가 있었고 결국 노력 끝에 기회를 잡아 세계적인 성악가로 성공했다.

자신의 성장 과정에 대해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되돌아보면 어느 곳에도 소속감을 느낄 수 없었고 친구도 없었다. 내 목소리와 노래가 유일한 친구였다. 노래를 부를 때만 존재감과 소속감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모든 역경을 이기고 스타가 된 폴 포츠는 이젠 많은 사람의 롤모델이 됐다. 이번주 초에는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악가를 꿈꾸는 ‘한국의 폴 포츠’ 여러 명을 만났다. “나를 롤모델로 여겨준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 그들에게 성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털어놨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로 희망을 전하기 위해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닐 계획이다. “음악가라면 음악을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곳에서 청중이 오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찾아다녀야 하는 거 아닐까요.”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호호호비치 제공·디자인/박은지









감격시대 쓰리데이즈 앙큼한 돌싱녀

수목극 '춘추전국시대'

'감격시대' '쓰리데이즈' '앙큼한 돌싱녀' 시청률 막상막하

절대 강자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가 떠난 수목 안방극 왕좌를 놓고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별그대'가 시청률을 잠식하던 일주일 전과 달리 세 드라마 모두 두 자릿수를 넘으며 1위 자리를 두고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다. 또 현재 지상파 3사가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가 각기 다른 장르라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볼거리도 풍부해졌다.

KBS2 '감격시대'는 지난 5일 12.0%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정상에 올랐다. 1930년대 격동의 시절을 배경으로 한 '감격시대'는 무협시대극이라는 장르에 누아르를 접목해 화려한 색감과 세련된 스타일로 새로운 장르 개척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SBS가 새롭게 선보인 대작 '쓰리데이즈'가 11.9%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첫 회부터 턱밑까지 추격했다. '쓰리데이즈'는 첩보 액션뿐만 아니라 멜로와 감동이 어우러진 복합 장르 드라마로 속도감 있는 전개가 매력적이다. 약 100억원이 투입된 대작인 만큼 이후에도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10.3%를 기록한 MBC '앙큼한 돌싱녀'의 선전 역시 눈여겨 볼 만하다. '앙큼한 돌싱녀'는 로맨틱 코미디의 장르적인 특성 탓에 시청자 유입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주상욱과 이민정이 환상 호흡 연기를 펼치며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매회 유쾌한 전개가 이어지면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아직까지는 수목극 최강자가 가려지지 않은 가운데 세 드라마 중 누가 끝까지 웃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2NE1 '빌보드 200' K-팝 신기록

정규 2집 '크러시' 5000장 판매… 앨범차트 61위

걸그룹 2NE1(사진)이 빌보드 앨범차트에서 한국 가수 최고 기록을 세웠다.

2NE1이 최근 국내에서 발표한 정규 2집 '크러시'는 5000장(닐슨 사운드스캔 집계)이 팔리며 5일 집계된 '빌보드 200'에서 61위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 기록은 2012년 소녀시대의 유닛인 태티서가 미니앨범 '트윙클'로 세운 126위였다.

2NE1은 2집 타이틀곡 '컴 백 홈'으로 장르별 차트인 월드 디지털 송스 차트에서도 5위에 올랐다. 2NE1의 이번 기록은 한국어로 제작된 국내용 앨범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빌보드에서는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 싱글차트인 '핫 100'이 메인 차트로 분류되며 '핫 100'에는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세운 7주 연속 2위가 최고 기록이다. /유순호기자

숨진 '짝' 출연자 심리적 압박 있었나

유족 "여러 문제 있어 장례 미루겠다"… 경찰 휴대전화·SNS 등 조사

SBS '짝' 출연자가 촬영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자살 동기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제작진과 출연진은 촬영 과정에서 강압적이거나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고인인 전씨 역시 유서에서 제작진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씨의 지인과 가족이 전씨가 촬영 중 힘들어했다고 밝힘에 따라 촬영 과정에서 자살의 동기가 될 만한 일이 있었는지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짝' 촬영 중 숨진 여성이 적은 유서 형식의 메모를 경찰이 옮겨 작성한 문서. /연합뉴스

전씨의 지인은 한 매체에 "제작진이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만들려고 했다. 카메라가 화장실까지도 계속 따라다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라는 말과 함께 전씨와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메세지를 공개해 심리적 압박을 받은 정황을 밝혔다. 전씨의 어머니는 "여러 문제가 있다. 장례를 미루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씨의 보험관계와 휴대전화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 등을 분석해 자살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전씨 사망 전후에 촬영된 카메라 영상도 확보해 분석할 예정이다.

전씨는 5일 오전 2시15분께 '짝' 촬영 장소인 서귀포시 하예동 한 펜션 화장실에서 헤어드라이어 줄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탁진현기자 tak0427@

샤이니 첫 중남미 투어



그룹 샤이니(사진)가 데뷔 후 첫 중남미 투어에 나선다.

샤이니는 다음달 멕시코·칠레·아르헨티나 등 3개국을 순회하며 단독 콘서트 '샤이니 월드 3'를 개최한다. 중남미 투어의 포문을 여는 멕시코 공연은 다음달 4일 멕시코시티 아레나에서 열리며, 칠레 공연은 6일 산티아고 무비스타 아레나에서, 아르헨티나 공연은 8일 부에노스아이레스 루나 파크 아레나에서 펼쳐진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공연은 샤이니가 중남미에서 개최하는 첫 단독 콘서트로 샤이니만의 차별화된 음악과 퍼포먼스, 다채로운 무대 연출로 완성도 높은 공연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샤이니는 8~9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세 번째 투어인 '샤이니 월드 3'의 시작을 알리는 서울 공연을 개최한다. /유순호기자

동방신기 하루 16만장… 한·일 음반차트 1위

동방신기(사진)가 한·일 음반차트를 동시에 석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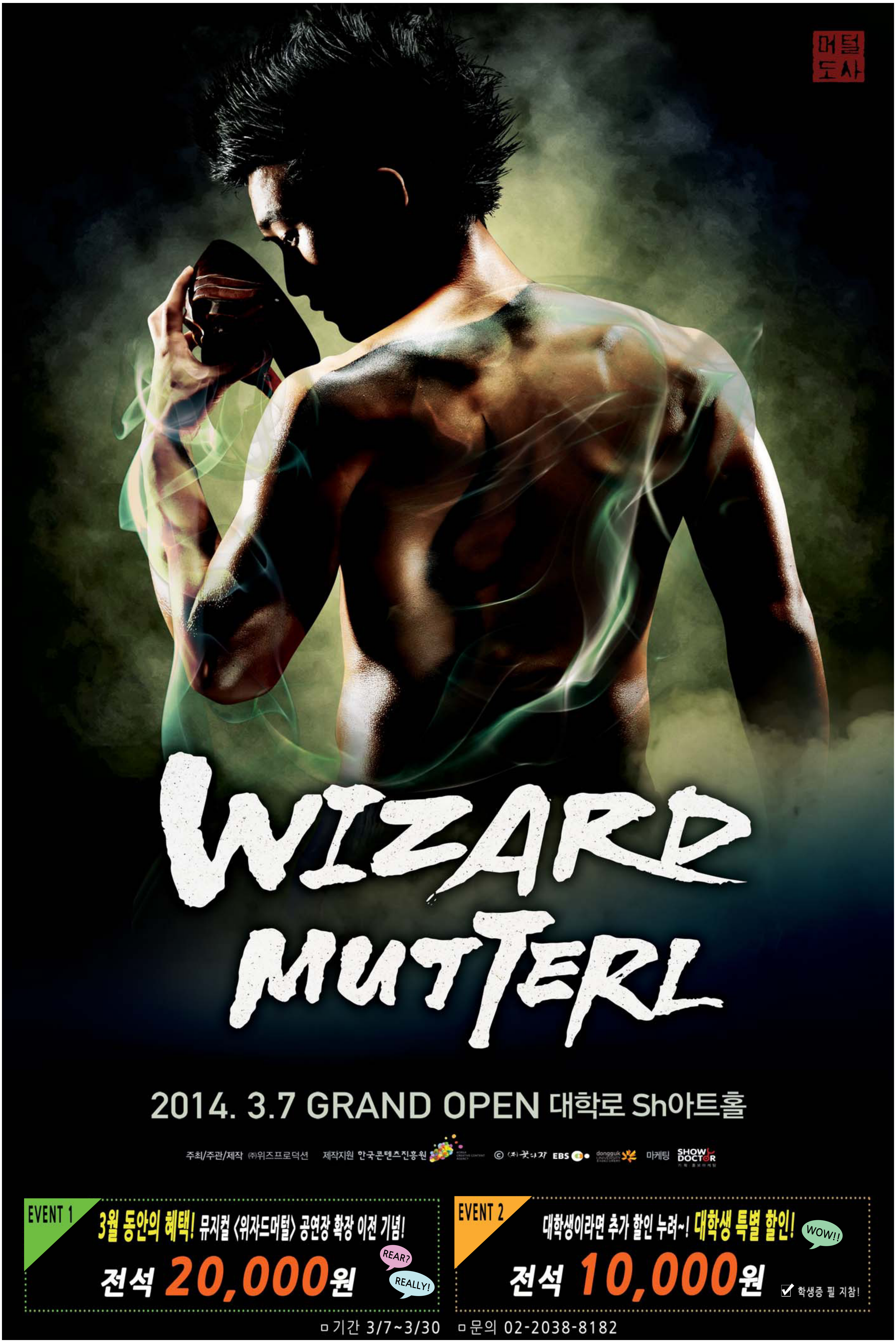


동방신기는 5일 일본에 발표한 새 정규앨범 '트리'로 오리콘 앨범 일간차트 정상에 올랐다. 하루 만에 15만6491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주간차트 1위도 가능할 전망이다.

베스트앨범 '베스트 셀렉션 2010'(2010년 2월), 정규앨범 '톤'(2011년 9월), 정규앨범 '타임'(2013년 3월)에 이어 통산 네 번째 앨범 주간차트 정상을 노리게 됐다.

한국에서도 동방신기는 지난달 27일 정규 7집 리패키지 앨범 '수리수리'를 출시해 신나라 레코드의 주간 음반 판매 차트(2월 24일~3월 2일)에서 1위에 올랐다. 또 5일 발표된 한터차트의 일간 순위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동방신기는 5일 신곡 '수리수리'의 두 번째 뮤직비디오를 공개해 세련된 퍼포먼스와 화려한 색감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여성 댄서와의 커플 댄스, 앙상블 등 한 편의 뮤지컬을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로도 눈길을 끌었다. /유순호기자 suno@



머털
도사
WIZARD
MUTTERL
2014. 3.7 GRAND OPEN 대학로 Sh아트홀
주최/주관/제작 ㈜위즈프로덕션 제작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 ㈜꿈아자 EBS dongguk UNIVERSITY 마케팅 SHOW DOCTOR
EVENT 1
3월 동안의 혜택! 뮤지컬 〈위자드머털〉 공연장 확장 이전 기념!
전석 20,000원
REAR?
REALLY!
EVENT 2
대학생이라면 추가 할인 누려~! 대학생 특별 할인!
WOW!!
전석 10,000원
학생증 필 지참!
ㅁ기간 3/7~3/30 ㅁ문의 02-2038-8182



서울 압구정동 SM엔터테인먼트 사옥 벽면을 가득 채운 소녀시대 새 앨범 홍보 래핑.

SM 사옥에 소녀시대 초대형 이미지

국민 걸그룹 소녀시대가 새 앨범 출시를 알리는 지상파 TV CF까지 공개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소녀시대는 6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에 새 미니앨범으로 변신한 모습을 담은 CF를 공개해 음악 팬들은 물론 안방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더불어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한 SM엔터테인먼트 사옥 외벽(사진)에는 소녀시대의 초대형 이미지가 래핑돼 있어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소녀시대는 6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7일 KBS '뮤직뱅크', 8일 MBC '쇼! 음악중심', 9일 SBS '인기가요' 등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서 컴백 무대를 선사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양성운기자 ysw@

'문제아' 삼총사 뭉친 음악방송

김구라·이상민·유세윤 '음담패설' MC 맡아

방송계의 문제아 김구라·이상민·유세윤이 뭉쳤다.

이들은 오는 19일 시작하는 엠넷의 새 프로그램 '음담패설'(사진)의 MC로 나선다. '저품격 음악탐구방송'이라는 취지 아래 가요부터 팝까지 음악에 대한 깊은 이야기부터 음악계에 떠도는 소문까지 다양한 주제를 넘나들며 음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김구라는 과거 팝 전문 잡지에 칼럼을 기고하고 MBC '라디오스타' 등에서 팝 지식을 자랑하는 등 팝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유명하다. 유세윤은 스스로를 "A급 가수가 되고픈 B급 개그맨"이라고 설명하며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한때 룰라로 가요계 정상에 섰던 이상민은 "SM이 되고 싶은 또 다른 SM"이라며 화려한 재기를 꿈꾸고 있다.

세 사람과 함께 MC로 낙점된 임진모 평론가는 한국 대중가요와 팝의 역사 등 전문적인 지식과 화려한 입담으로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유일한 PD는 "'음담패설'은 엠넷만이 할 수 있는 신개념 음악 토크쇼"라며 "음악계의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뚫어주며 통쾌함과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민기자

'슈스케6' 참가자 접수



국민 오디션 엠넷 '슈퍼스타K 6'(사진)가 돌아온다.

6일 참가자 접수를 시작한 '슈퍼스타K 6'는 7월까지 지역 예선을 거친 후 8월부터 본 방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슈퍼스타K 5'의 결승전이 1.8%(TNmS 기준)로 역대 결승전 최저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부진에 빠졌던 만큼 '슈퍼스타K 6'는 제작진을 교체하고 원조 오디션 프로그램의 명성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엠넷 김기웅 국장은 "김무현 PD는 지난 5년간 오직 '슈퍼스타K'만을 고민한 연출자다. 매 시즌 제작 현장의 구석구석을 누빈 그의 경험과 열정은 '슈퍼스타K 6'를 위한 최고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출을 맡은 김무현 PD도 "참가자와 시청자가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시즌을 만들도록 하겠다. 모든 국민이 사랑하는 '슈퍼스타K'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효진기자 jeonhj89@

"세트장 추워 콜록콜록"

'응급남녀' 촬영장 공개

송지효 "최진혁과 키스신 찍을때 NG 없어"

병원 로맨스 드라마 tvN '응급남녀'(사진)의 비밀스러운 촬영 현장이 공개됐다.

6일 경기도 남양주 세트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주인공 송지효는 "세트장이 추워서 모두 독감에 걸렸었다. 다 같이 야외 촬영장인 보라매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촬영했다"며 "다들 고생이 많은데 시청률이 점점 올라가서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응급실 치프 국천수로 여심을 사로잡고 있는 이필모는 "내 캐릭터에 대한 반응이 좋다던데 난 잘 모르겠다"며 "고립된 세트장에서 촬영이 진행되기 때문에 인기가 실감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닐슨코리아 기준 평균 시청률 4.1%를 기록하며 인기몰이 중인 '응급남녀'는 6년 전 이혼했던 철천지 원수 부부가 병원 응급실 인턴으로 다시 만나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이다. 전남편 오창민(최진혁)은 이혼 후 아내 오진희(송지효)와 함께 인턴 생활을 하며 부부였을 때 미처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보고 다시 사랑하게 된다.



6일 경기도 남양주 세트장에서 열린 tvN '응급남녀' 기자간담회에서 이필모 송지효 최진혁(왼쪽부터)이 환하게 웃으며 남다른 팀워크를 과시했다. /손진영기자 son@

최진혁은 "처음에 전 부인에게 다시 설렘을 느낀다는 설정이 이해가 지 않았다"며 "하지만 두 캐릭터가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헤어졌고 다시 만나 새로운 감정을 깨닫는 과정을 보니 창민이라는 캐릭터가 이해 간다"고 말했다.

드라마 속 키스신에 대해 송지효는 "대사 NG는 많은데 키스신은 절대 NG가 안 난다"며 "한 번에 오케이로 끝났다"고 말했다.

NG 없는 키스신 비결에 대한 질문에 최진혁이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최여진은 "많이 해본 것 같다"고 대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SBS '런닝맨'에서 송지효와 '월요커플'인 리쌍의 개리가 '응급남녀' 6회에 대리기사 역할로 깜짝 등장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에 송지효는 "전화 한 통으로 개리 캐스팅에 성공했다"며 "앞으로 또 어떤 사람이 카메오로 등장할지 모르니 계속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쎄시봉친구들 멤버인 이상벽·김세환·윤형주·송창식·함춘호(왼쪽부터).

포크송 섬세한 하모니 들어보실래요?

쎄시봉친구들 원년멤버 역대 최대규모 공연

쎄시봉 친구들(송창식·윤형주·김세환·이상벽)의 원년 멤버들이 3년 만에 다시 만나 역대 최대 규모의 공연을 개최한다.

이들은 다음달 5~6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새로운 구성과 연출로 꾸미는 '쎄시봉 친구들 콘서트'를 선사한다. 포크 음악의 특성상 화려한 무대보다는 음향적으로 보다 완벽한 공연을 만들기 위해 국내 유명 음향엔지니어들과 협의하고 있다. 또 국내 어쿠스틱 기타 세션의 최고 권위자인 시인과 촌장 출신의 함춘호가 합류한다.

공연을 제작한 쇼플러스 관계자는 "송창식·윤형주·김세환의 섬세한 하모니를 표현하기 위해 음향과 조명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50~60대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날로그 정서를 무대에 녹여내 1세대 포크 음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에서는 트윈 폴리오 시절 히트곡인 '웨딩케익' '하얀 손수건'을 비롯해 1970년대 음악감상실 쎄시봉에서 공연했던 올드팝을 부르는 무대를 마련한다. 또 송창식·윤형주·김세환은 각자의 히트곡 '사랑이야' '비의 나그네' '사랑하는 마음' 등을 차례로 부르는 솔로 무대도 준비하고 있다.

쎄시봉 친구들은 서울 공연 이후 5월 대구 공연을 시작으로 하반기까지 전국 순회 공연을 진행한다. /유순호기자 su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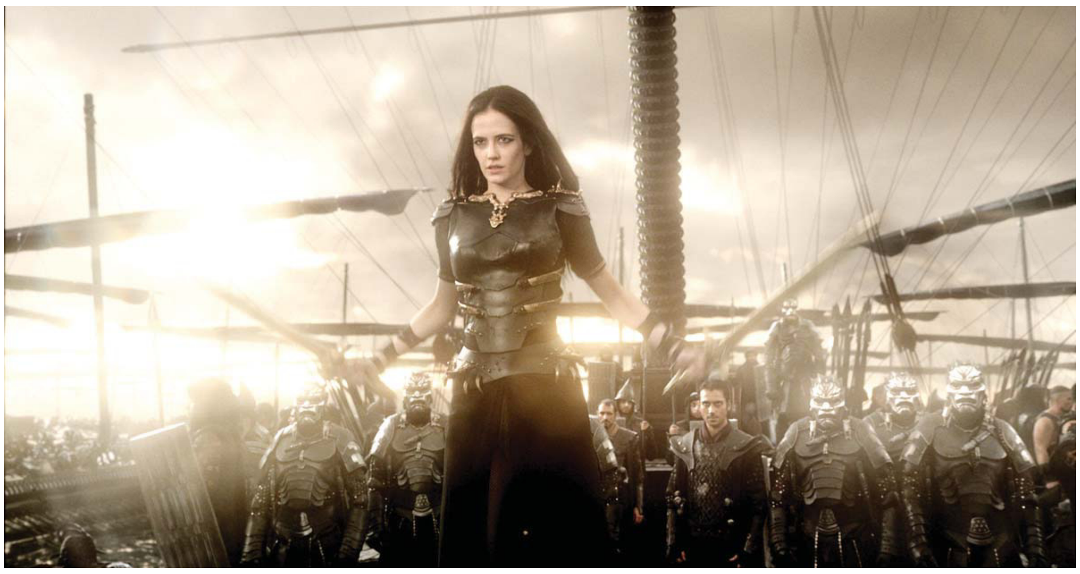
생동감 넘치는 스펙터클 해전

잔혹한 여전사 에바 그린 존재감 발산… 강렬한 한방은 없어

film review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300: 제국의 부활



전 세계에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영화 '300'의 속편인 '300: 제국의 부활'(사진)이 색다른 이야기로 돌아왔다.

6일 개봉한 이 영화는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해전으로 기록된 살라미스 전투를 다룬 초대형 액션 블록버스터다. 전편이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벌어지는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3일간의 전투를 그렸다면 속편은 전작과 동일한 시기를 다루되 무대를 바꿔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해전을 담았다.

속편은 '영상 혁명'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이후의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영향을 끼친 '300' 특유의 극도로 폭력적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한 형태를 이어받았다. 그렇기에 영상은 전편처럼 혁명이라 불릴 만큼 새로운 건 없다. 그만큼 한방의 강렬함도 없다.

다만 8년의 시간이 지난 만큼 기술력이 더해진 3D 영상이 새로운 무기가 됐다. 수십 척의 배가 맞붙는 대규모 해전이 거친 파도가 치고 피 튀기는 전투가 벌어지는 바다의 한가운데로 들어온 것과 같은 생동감을 선사한다.

그러나 정작 속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화려한 볼거리도 그리스 군사들의 빨래판 복근도 아닌 페르시아 해군을 이끄는 잔혹한 여전사 아르테미시아로 분한 여배우 에바 그린이다.

에바 그린의 섬뜩한 아름다움이 주인공인 아테네의 영웅 테미스토클레스를 연기한 설리번 스테이플턴을 포함해 수십 명 전사들의 존재감을 뛰어넘는다. 관객들이 전편에선 스파르타 전사들로 분한 남자 배우들의 조각 같은 복근에 열광했다면 이번에는 에바 그린의 매력에서 눈을 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관람 등급은 전편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관람불가다.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급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2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한 전편의 아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직배사 워너브라더스 코리아가 멀티플렉스 CGV, 롯데시네마와 극장 입장권 수익을 분배하는 부율 문제로 갈등을 빚어 서울 상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개봉 이틀 전 극적으로 합의해 흥행을 기대하게 됐다.



스타 포트먼 입맛 사로잡은 셰프 김훈이 '마셰코' 출연

할리우드 스타 내털리 포트먼과 드류 베리모어의 단골 셰프가 올리브TV '마스터셰프 코리아 3'(이하 '마셰코 3')에 출연한다.

한식 최초의 미슐랭 스타 오너셰프로 알려진 후니킴(한국명 김훈이·사진)이 다음달 19일 첫 방송되는 '마셰코 3'에 새 심사위원으로 합류한다. 지난 시즌까지 심사를 맡은 김소희 셰프는 하차한다.

후니킴은 한식당으로는 처음으로 2012년 미슐랭 1스타를 받은 미국 뉴욕의 레스토랑 단지와 한국 스타일 주점 한잔의 오너 셰프다. 미국인에게 거부감이 강한 한국의 장을 직접 들여와 만든 요리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지난해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10대 레스토랑에 랭크되는 등 한식 세계화의 새로운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후니킴은 뉴욕 셀러브리티의 까다로운 입맛을 책임져온 톱 셰프답게 깐깐하고 정확한 심사는 물론 도전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칭찬으로 맹활약할 예정이다. 터줏대감 강레오와 심사의 쌍벽을 이루며 재미와 긴장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노희영 심사위원이 두 사람의 의견 차를 조율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순호기자 suno@



'논스톱' 개봉 1주일만에 100만 '테이큰'보다 두배 빠른 흥행

환갑의 액션 스타 리암 니슨이 노익장을 과시했다.

니슨 주연의 할리우드 액션 영화 '논스톱'(사진)이 개봉 일주일 만에 100만 관객을 넘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개봉한 이 영화는 5일까지 누적 관객 수 102만423명을 동원했다. 5일 하루 6만3084명을 모아 일일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2014년 2월 최고 오프닝 기록, 역대 삼일절 최고 스코어 경신에 이어 2월 개봉작 중 최단기간 100만 관객 돌파라는 타이틀을 또 하나 얻었다.

이번 성과는 개봉 15일에 100만3418명을 모은 니슨의 히트작 '테이큰'보다 두 배 빠른 흥행 속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같은 흥행 추세라면 니슨의 대표작 목록을 '테이큰'에서 '논스톱'으로 갈아치우는 것도 어렵지 않아 보인다.

영화는 4만 피트 상공에서 비행기가 납치돼 탑승객 전원이 인질이자 용의자가 된 상황에서 미 항공 수사관 빌(리암 니슨)이 사상 최악의 테러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고공 액션 블록버스터다.

한편 5일 일일 박스오피스 2~5위는 '폼페이: 최후의 날' '노예 12년' '수상한 그녀' '찌라시: 위험한 소문' 순이었다.

/탁진현기자

'섹시 헤라클레스' 납시오

꽃미남 켈란 루츠 영화 주연

다음달 개봉 예정인 액션 판타지 블록버스터 '헤라클레스 : 레전드 비긴즈'(사진)가 메인 예고편을 공개해 기대를 불러모으고 있는 가운데 주인공인 켈란 루츠가 역대 헤라클레스를 맡은 배우들과는 다른 매력을 스크린에 펼쳐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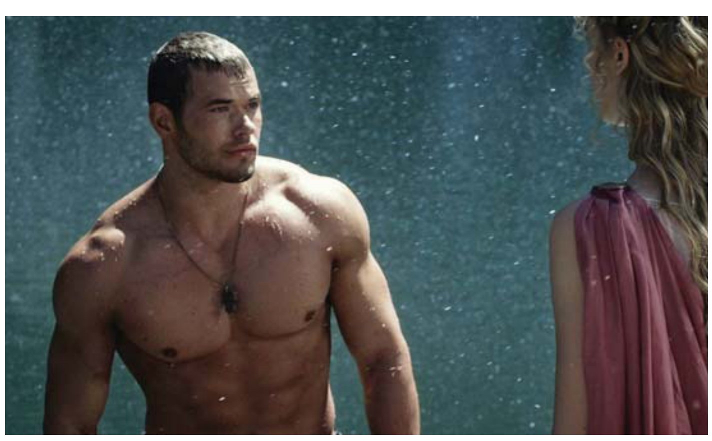
이 영화는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 신이 선택한 인간 헤라클레스의 이면에 드리워진 고뇌와 역경 그리고 영웅으로서의 운명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트와일라잇'의 꽃미모 뱀파이어 에멧 역으로 스타덤에 오른 할리우드 대세남 켈란 루츠가 헤라클레스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1958년작 '헤라클레스'의 스티브 리브스, 1983년작 '헤라클레스'의 루 페리그노, 1970년작 '뉴욕의 헤라클레스'의 아널드 슈워제네거 등 역대 헤라클레스들은 모두 보디빌더 출신으로 엄청난 근육과 마초적인 이미지를 어필하며 힘 센 영웅에 초점을 맞췄다.

루츠는 이들과는 다르게 가장 젊고 섹시한 헤라클레스를 선보인다. 과하지 않은 탄탄한 근육과 잘생긴 얼굴,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위용을 뽐내며 짜릿한 액션을 펼치는 것은 물론 연인 헤베와의 가슴 뛰는 로맨스로 강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선보이며 여심을 흔들 예정이다.

레니 할린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헤라클레스 캐스팅에서 우리가 주안점을 둔 부분은 새롭게 떠오르는 젊은 피이자 연기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뉴페이스를 찾는 것이었다"며 루츠가 적격이었다고 밝혔다.

/탁진현기자



CGV '위생 극장' 앞장

진드기 방제 시스템 도입

CGV가 업계 최초로 '위생 극장' 운영에 앞장선다.

CGV는 5일 방제기업인 세스코와 CGV 전체 영화관에 진드기 방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GV에 도입하는 시스템은 상영관 내부에 인체와 접촉이 되는 곳을 우선으로 진드기 서식처를 파악해 먼지, 사람의 각질 등 진드기 발생 원인 물질은 물론 진드기 사체까지 제거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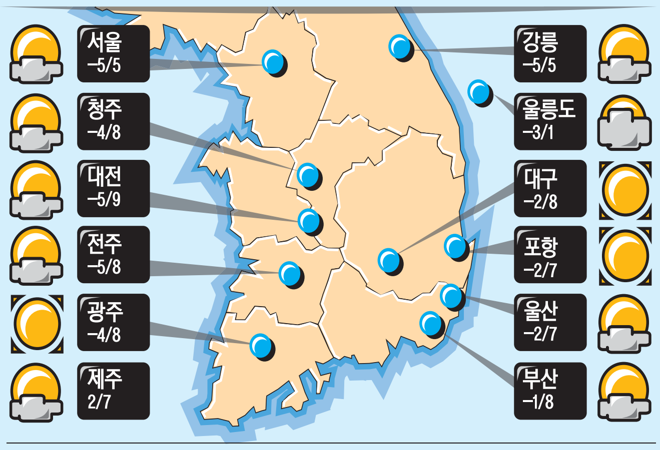
CGV는 이달 전국 전체 극장에 순차적으로 진드기 방제 시스템을 적용해 기준에 부합하는 극장에 대해서는 세스코 인증마크를 붙이게 된다. CGV는 이와 함께 극장 청소 프로세스를 강화해 인력과 시간을 2배 이상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날씨

3/7 金 일출시각 06:56 일몰시각 18:3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갑작스러운 야외 활동은 무릎관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스트레칭 후 걷기나 자전거 타기 등을 통해 다리를 먼저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감기가능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9			1	4			5
	7			9	3	8		
		9		3		4		
5		3				2		6
		8		2		9		
		6	7	8			4	
1			3	6			2	
							8	

	2		4					6
	3		9			1		
1			6			8	2	
					1			8
	6	3		2		7	1	
2			7					
	1	8			6			9
		2			7		8	
6					3		4	

스도쿠 정답

8	4	1	6	7	5	3	9	2
3	9	2	8	1	4	7	6	5
6	7	5	2	9	3	8	1	4
7	2	9	1	3	6	4	5	8
5	1	3	9	4	8	2	7	6
4	6	8	5	2	7	9	3	1
9	5	6	7	8	2	1	4	3
1	8	4	3	6	9	5	2	7
2	3	7	4	5	1	6	8	9

7	2	5	4	1	8	9	3	6
8	3	6	9	7	2	1	5	4
1	9	4	6	3	5	8	2	7
4	5	7	3	6	1	2	9	8
9	6	3	8	2	4	7	1	5
2	8	1	7	5	9	4	6	3
5	1	8	2	4	6	3	7	9
3	4	2	5	9	7	6	8	1
6	7	9	1	8	3	5	4	2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인천 청라의 에메랄드路



권기봉의
도시산책 <71>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해방 후 세대다. 하지만 아버지 함자에는 '수컷 웅(雄)'자가, 어머니 함자에는 '아들 자(子)'자가 들어가 있다. 모두 일본식 이름의 흔적들로, 남자 이름 속의 '사내 랑(郞)'자나 여자 이름 속의 '가지 지(枝)'자처럼 이름 속 일제의 흔적은 지금도 여전하다.

지명에는 아예 인위적인 왜곡이 가해지기도 했다. 전북 장수군 용계리의 경우 지금은 '용 용(龍)'자에 '시내 계(溪)'자를 쓰고 있지만 애초에는 계(溪)자 대신 '닭 계(鷄)'자를 썼다. 고려 말 이성계가 용의 기운을 지닌 닭이 울어준 덕분에 왜구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둔 데서 생겨난 이름이다. 그러나 조선을 식민지화한 일제는 이성계의 왜구 토벌과 관련이 있는 '닭 계'자를 '시내 계'자로 바꿔버렸다.

서울이라고 다를 것도 없다. 전체 동 가운데 30% 정도가 일제강점기 당시의 지명을 쓰고 있는데, 그중 종로구의 경우엔 절반 이상이 일제 때 명칭이다. 용계리의 수난처럼 그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관련이 없는, 일제의 정치적인 의도나 편의에 따른 이름들이다.

그리고 2014년….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크리스탈로' '에메랄드로' '사파이어로' 따위의 이름을 가진 도로가 생겨났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올해 전격 시행된 도로명 주소 체계의 결과물들이다. 일제의 만행과는 또 다른 차원의 비극치고는 참 잔혹하지 않나 싶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역학 공부하려는데 어떨까 직업 삼고싶으면 도전하길

복바치 여자 65년 7월 10일 오전 6시

Q 철학관에 가서 물어보면 제 사주에 물이 많다고 올해처럼 화의 기운이 오게 되면 물이 불을 끄게 되어 안 좋다고 하는데요. 지금 역학에 대한 공부가 재미있어서 공부를 하려는데 나중에라도 공부한 것을 활용 할수 있을까요? 또 올해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2014년은 일 년 내내 속전속결하는 충동심이 따르게 되어 지구력이 약하게 되니 말과 생활에서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말로 인한 불화가 따라서 주변과 화합을 하기 어려운 동주입묘(同柱入墓:같은 오행으로 이뤄졌으며 묘지에 들)하여 공연히 구설수가 따릅니다. 사주에 금기(金氣)인 인수(印綬:나를 생해주는 오행)가 부족하여 물만 먹어도 살이 찌거나 갑상선도 우려되니 건강보험을 꼭 들고 공부를 하여 자신의 인생 행로를 알아보고 주위 사람들의 사주도 알아보는 것이 삶의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역(易)을 삶의 터전인 직업으로 가질 계획이라면 의지를 갖고 자신의 염원을 담아 정성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시골 땅 팔아 나눠갖자는데 모친 몫 포함해 처분하도록

달별사랑 남자 53년 5월 14일 새벽

Q 90세 어머니가 시골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동생이 모시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땅을 처분해서 나눠 갖자고 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게 정상인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염상지상(炎上之象)은 호탕하고 달리는 말과 같아 앞으로 나갈 줄만 알고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주팔자와 운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형제들의 의견을 들어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 분할이 된 즉시 형제들이 뿔뿔이 헤어지는 것도 시대의 일반 흐름일 수 있으니 어머니를 최후까지 잘 모시면서 어머니 몫도 떼어놓고 화합을 유지하여 혈육의 정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할 수밖에요. 가족이 분열되면 인생의 가치가 반감되는 것이며 조상 볼 면목이 없는 것이니 어머니 살아생전에 재물을 갖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2014년부터 정리하십시오. 2016년이 되면 합이 불화하여 재물을 놓고 여럿이 다투게 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3월 7일 (음 2월 7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쥐 — **48년생** 약장수에게 속지 않도록~. **60년생** 본분을 지키면 기회는 온다. **72년생** 남의 일이라고 가볍게 움직이지 마라. **84년생** 큰 꿈을 이루려면 배짱이 필요하다.

소 — **49년생** 동쪽에 웃을 일 생긴다. **61년생** 실수는 약이니 자신감 잃지 마라. **73년생** 귀인을 만나서 새로운 목표 정한다. **85년생** 빈 깡통이 요란한 법이니 속 차려라.

호랑이 — **50년생** 힘은 들어도 보람된 하루~. **62년생** 한턱 낼 경사가 생긴다. **74년생** 운세가 별로이니 한눈팔지 마라. **86년생** 공들인 일은 큰 성과를 안긴다.

토끼 — **51년생** 소망한 일은 이뤄진다. **63년생** 기회가 왔을 때 존재감 보여줘라. **75년생** 골치 아픈 일은 해결이 된다. **87년생**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착각은 마라.

용 — **52년생** 돈거래는 신중할 것. **64년생** 오늘은 당근보단 채찍이 효과적이다. **76년생**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만들어라. **88년생** 연인 눈물 닦아줄 일이 갑자기 생긴다.

뱀 — **53년생**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다. **65년생** 세상엔 공짜가 없음을 명심~. **77년생** 해묵은 숙제는 깔끔하게 정리된다. **89년생** 중요한 일 즉흥적으로 결정 마라.

말 — **42년생** 불청객은 미연에 방지할 것. **54년생** 다른 사람 쉽게 판단하면 낭패 본다. **66년생** 두 얼굴의 상사 때문에 황당~. **78년생** 첫 무대는 화려하게 막을 내린다.

양 — **43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55년생** 부당한 부탁은 하는 시늉만 하라. **67년생** 부업이 본업으로 반전된다. **79년생** 뜻을 이루려면 찬밥 더운밥 가리지 마라.

원숭이 — **44년생** 아랫사람과의 다툼은 피하라. **56년생** 멀리 보이는 것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68년생**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80년생**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된다.

닭 — **45년생** 자손이 희소식을 전한다. **57년생** 생각도 않은 곤란한 일 대비하라. **69년생** 허영심은 눈물만 흘리게 한다. **81년생** 엉뚱한 일로 에너지 낭비 마라.

개 — **46년생** 자기 관리에 신경 써라. **58년생** 귀를 열면 경청의 힘 실감한다 **70년생** 직장인은 상사와의 갈등 조심~. **82년생** 영업 사업은 모처럼 대박을 터트린다.

돼지 — **47년생** 밖으로 나가면 입이 즐겁다. **59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문앞 당도~. **71년생** 편안함 추구하면 건강 더 나빠진다. **83년생** 귀인은 예고 없이 오니 항상 친절할 것.

사랑에 빠진 김연아

소속사, 훈남 아이스하키선수 김원중과 교제 시인





'피겨 여왕' 김연아(24·사진 왼쪽)가 사랑에 빠졌다.

상대는 훈남 아이스하키 선수 김원중(30·오른쪽)으로 6일 이들의 데이트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교제 사실이 알려졌다.

김연아의 소속사 올댓스포츠는 "김연아 선수 열애 기사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며 김원중 선수와 교제 중임을 말씀드립니다"라고 교제를 인정했다.

두 사람은 고려대 빙상 동문으로 2012년 7월 태릉선수촌에서 조우했다. 데이트는 주로 태릉 인근에서 삼겹살을 먹으며 이뤄졌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경기 일정으로 바쁜 와중에 기념일도 챙겼다. 김원중은 지난해 9월 5일 김연아의 생일파티를 열었고 12월 19일엔 김연아가 김원중의 생일을 기념했다. 두 사람은 지인 등과 동반 데이트를 하면서 주변 시선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의 열애가 야후 재팬 메인을 장식하는 등 일본에서도 주목받는 가운데 '김연아의 남자' 김원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학생 시절 처음 하키 스틱을 잡은 그는 현재 국군체육부대 하키팀(대명 상무) 소속이다. 안양 한라 소속 당시 아시아리그 2연패 주역이며 2011 동계 아시안게임에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2년 4월 폴란드에서 열린 '디비전1'에선 한국을 B그룹 우승국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특히 밴쿠버 올림픽 이후 복귀를 선언한 김연아가 부상으로 고생할 당시 김원중이 많은 힘이 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전효진기자 jeonhj89@



류현진 4이닝 2실점 호투

류현진(27·LA 다저스·사진)이 두 번째 시범경기에서 4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며 승리를 따냈다.

류현진은 6일 미국 애리조나주 굿이어 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 초반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노련하게 마운드를 운영하며 4이닝을 던지고 내려왔다. 삼진 3개, 4피안타, 2볼넷을 기록했다.

1회 연속 안타와 수비 실책으로 1점을 내준 류현진은 2회에도 2개의 안타와 볼넷 등으로 추가 실점했다. 3회에는 안정을 찾아 중심타선을 깔끔하게 막았다. 4회에는 병살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

류현진은 4회까지 총 58개의 공을 던졌고, 팀이 4-2로 앞선 가운데 호세 도밍게스에게 마운드를 물려줬다.

/유순호기자 suno@

추신수 2경기 연속 안타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가 시범경기에서 2경기 연속 안타를 터뜨리고 첫 득점했다.

추신수는 6일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시범경기에서 1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했다.

그는 이날 3타수 1안타에 득점까지 기록하며 시범경기 12타수 2안타(타율 0.167),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추신수는 1회 첫 타석에서 프랭클린 모랄레스의 4구를 받아쳐 중전 안타로 연결했다. 이후 이어진 프린스 필더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았다. 텍사스는 2-8로 졌다.

/전효진기자

프로농구 전적 6일

전자랜드	21	20	18	21	**80**
오리온스	11	10	20	26	**67**
KCC	21	18	18	23	**80**
인삼공사	18	21	16	17	**72**
KDB생명	15	17	17	19	**68**
삼성생명	17	17	16	15	**65**

프로배구 전적 6일

러시앤캐시	1	3	현대캐피탈



모든 설움 이 한방에… 5일(현지시간) 오후 그리스 아테네 카라이스카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그리스의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박주영이 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영 '해결사 본능' 살아있네!

그리스전 결승골… 손흥민 1골 1도움 맹활약
브라질행 승선 23명 윤곽… 김보경 주전 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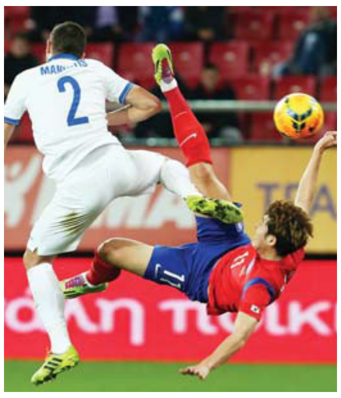
한국이 그리스와의 대표팀 평가전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브라질행 홍명보호에 탑승할 23명의 윤곽이 드러났다.

6일 그리스전을 함께했던 해외파는 이변이 없는 한 엔트리 포함이 확실해졌다. 이청용(25·볼턴 원더러스 FC), 손흥민(22·바이엘 레버쿠젠), 기성용(25·선덜랜드 AFC), 구자철(25·FSV 마인츠), 홍정호(24·FC 아우크스부르크), 김영권(24·광저우 에버그란데 FC) 등은 일찌감치 홍 감독에게 눈도장을 받았다.

홍 감독의 전술은 포백 앞에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세우는 '4-2-3-1' 포메이션이다. 김신욱(26·울산 현대)과 지동원(23·아우크스부르크)이 전방 공격수로 유력한 가운데 박주영(29·왓포드 FC)의 최종 엔트리 합류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리스전 시작 전까지만 해도 박주영의 대표팀 발탁에 대한 우려가 컸다. 하지만 전반 18분 박주영의 첫 골은 브라질 월드컵에서 선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골을 터뜨린 이후에도 박주영은 날렵한 움직임을 보이며 한국의 공격을 이끌며 2014 브라질 월드컵 공격수 자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일단 현재로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박주영의 합류가 유력한 상황이다.

2선 공격수로는 이청용과 손흥민이 구축한 벽이 너무나 높다. 최근 카타르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남태희(23·레퀴야 SC)와 김보경(25·카디프시티 FC)도 최종 명단에 이름은 올릴 가능성이 높지만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손흥민의 멋진 오버헤드킥
5일(현지시간) 오후 그리스 아테네 카라이스카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그리스의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손흥민이 오버헤드킥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기성용의 파트너도 관건이다. 일단 한국영(24·가시와 레이솔)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하대성(29·베이징 궈안)과 박종우(25·광저우 푸리)에게도 충분히 기회는 남아있다.

이외에도 골키퍼는 김승규(24·울산), 정성룡(29·수원삼성 블루윙즈)과 함께 일본 J리그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진현(26·세레소 오사카)이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두리와 황석호·곽태휘가 그리스 평가전을 앞두고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최상의 전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보호도 중요하다.

홍 감독은 "최종 엔트리 제출 때까지 2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은 만큼 이번에 선발한 선수 가운데 몇 명이나 데려갈지는 차차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6일 오전 그리스 아테네 카라이스카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그리스와의 평가전에서 박주영과 손흥민의 연속골로 2-0 완승을 거뒀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